

Global Mission Hospital of Cherishing Life through Excellence in Integrative Medicine & Holistic Healing

## 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글로벌 선교 병원

- 암에 대한 '통합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통합의학암센터
- 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인공관절수술 부문 우수기술 보유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절성 평가 '최우수 등급' 병원
-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시술 인증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선정 외국인환자유치 종합병원 부문 1위 병원

안양샘병원 031 467 9114    샘여성병원 031 467 1000    샘한방병원 031 463 4310    G샘병원 031 457 9114

통합의학암센터 031 467 9188 / 9388 | 관절전문센터 031 467 9167 | 뇌척추센터 031 467 9285 | 치과센터 031 463 4383  
샘건강의학센터 031 463 4331~2 | 샘산업의학센터 031 463 4390~2 | 응급센터 031 467 9119 / 9129 | 산후조리원 031 467 1190  
산전관리실 031 467 1020~1 | 만안구노인보건센터 031 466 6370 | 샘병원교회 031 467 9335 | 장례식장 031 467 9700 / 9770



제 5 회

2012 DCTY 기독교 교육 컨퍼런스

# 세상을 바꾸는 교육



일시 2012.6.15(금)-16(토)

장소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주제강사 신국원

- ▶ 동신대 신학과 철학 교수
- ▶ 분당중앙교회 협동 목사
- ▶ 일리노이 대학원 연구 교수
- ▶ 주요 저서: 『니고테모의 만경』



주제강사 이지성

- ▶ 전 삼원초등학교, 사원초등학교 교사
- ▶ 7차 교육과정 어린이 개발 사업 총괄대사
- ▶ 주요 저서: 『리딩으로 리더하라』



주제강사 리처드 에들린

- ▶ 고신대학교 객원교수
- ▶ 에드거브 인문학자상을 설립자
- ▶ 교육학 박사
- ▶ 주요 저서: 『기독교 교육의 기초』



**2011 워크샵 주제** ◆**홈스쿨 시작하기** 8세 이전에 가르쳐야 할 열가지 / 우리 자녀를 위한 커리큘럼 만들기 / 홈스쿨의 가치 / 가정을 살리는 올바른 권위 / 다양한 홈스쿨 접근 방식 자녀와 부모의 학습 및 교수 유형 / 홈스쿨의 위험요소 인식과 해결방법, 홈스쿨 아바 제대로 하기 ◆**홈스쿨로 공부하기** 영어 못하는 엄마가 영어 가르치기 / 고전적 교육법으로 문학 가르치기 / 문학으로 가르치는 유초등 언어교육 / 사춘기 청소년은 무엇을 원하는가 / 홈스쿨 축구의 과학과 예술 / Newspaper in Education / 코업으로 공부하는 과학 / 고등학교 과정을 홈스쿨로 공부 해야 하는 이유 / 유비추리를 통해 사고력 키우기 ◆**기독교 교육과 홈스쿨링** 유대인 홈스쿨링의 학습교육 / 유대인의 신앙과 인성교육 / 성경적 여성성 전달하기 / 역사와 사회의 통합적 교육 / 노동이 기도라 / 통합적인 기독교 영성: 부모의 영성에 따른 교육 / 통합적인 기독교 영성을 기초로 한 교육의 예 /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 샬롯 메이슨의 과학 교육 / 아름답고 경이로운 지구 /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인간 정보처리의 한계와 극복방안 ◆**과학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두 권의 책, 과학과 성경 / 과학 철학 이해 과학의 변화와 혁명 / 기독교 세계관으로 과학 가르치기 / 기독교 세계관으로 과학 바라보기 /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과학주의와 기독교 ◆**홈스쿨링으로 세상 바라보기** 법으로 해석하는 홈스쿨링: 의무교육과 의무취학 / 홈스쿨링 운동사: 교육 독점에 반기를 든 존 홀트와 기독교교육 금지에 반기를 든 보수 기독교 단체 / 입학 사정관 제도와 국제 청소년 성취 / 창의적 인재 발굴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 저지대 비전론 / 기독교인은 자연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생태적 위기 시대의 과학 교육

문의 070.7732.7256

홈페이지 [www.dctybooks.co.kr/conference](http://www.dctybooks.co.kr/conference)

주최 DCTY 꿈을이루는사람들

후원 한국기독교홈스쿨협회 기독교대한학교연맹 JHA(조슈아홈스쿨아카데미) 아이홈스쿨러 하늘소리오케스트라 글로벌홈스쿨링아카데미



# Laboratory Industrial

100년 역사  
양심을 다는 저울  
오하우스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02)2040-6392  
[www.ohaus.co.kr](http://www.ohaus.co.kr)





# 아버지와 권위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줄어지고, 이혼이 빈번하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비나 어미도 자녀를 두고 가출해버려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 달콤한 가정(home, sweet home)”은 옛날 동요에서나 나올 직한 말이 되고 말았다.

가정의 기능이 모호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이 가족의 경제적인 생존과 안전을 책임졌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고아와 남편이 없는 과부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의 기능이 조금씩 국가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복지란 이름으로 국가가 경제적 수요를 공급하고 법률과 공권력으로 개인의 안전을 보장한다. 고아와 과부가 과거만큼 힘들게 살지는 않는다. 옛날에는 자녀의 교육도 가정이 책임졌다. 그래서 버릇없는 자를 ‘호레자식’이라고 욕했는데 아비 없이 자란 사람이란 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 교육기관이 양육과 교육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변화에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대답한다. 해체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애써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가정은 본래 행복의 근원이란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가가 아무리 치밀하게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 주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살펴 준다 해도 가정의 역할을 대행할 수는 없다. 국가의 행위는 제도, 법, 규정을 따라야 하고 어떤 제도, 법, 규정도 개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다. 국가에는 한 개인은 다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우리 하나 하나는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존재다.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고 아무것도 자녀와 바꿀 수 없다. 국가의 보호와 복지는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꿀벌이나 개미의 군거(群居)를 유지하는 본능적 질서와는 달리 모든 인간 공동체에는 인위적인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뜻이 맞더라도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질서를 위해서는 권위 행사자가 정해져야 한다. 하루는 아버지가 명령하고 다음날엔 어머니, 그 다음 날엔 아들이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대부분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권위를 행사해 왔다. 그것은 우연하게 형성된 전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아무래도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하므로 주로 집에 머물러야 했으며 섬세하고 자상해야 아기의 모든 구석을 잘 살필 수 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바스텐데이크(J. J. Buytendijk)는 여자의 시각은 치밀하다(intensive)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족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했고 그 사회적 책임 가운데는 종교적, 교육적 책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강해야 하고 남자의 시각은 섬세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대신 광범위(extensive)해야 했다. 아버지가 가정의 권위를 행사하게 된 것도 이런 특징들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嚴父慈母)”란 표현이 생겨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상당한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가 수행했던 많은 업무를 국가가 대행하게 되자 그의 위상이 많이 약해졌다. 그러나 아기는 국가가 낳아 줄 수 없고, 갓 태어난 아기를 국가가 돌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해도 어머니는 불가결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만큼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만인 사치품이 되고 만 것이다. 아버지의 권위가 약화하는 것은 단순히 여권이 신장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버지의 역할 상당 부분을 국가가 대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치 국가가 가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국가가 가정의 권위를 대행할 수도 없다. 가정의 영역 주권을 국가가 침범할 수도 없고 침범해서도 안 된다.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라도 권위를 가져야 가정의 질서가 설 수 있고 자녀가 정상적인 훈육을 받을 수 있다. 아직은 아버지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자녀가 결정하고 부모가 그에 순종하거나 아내가 명령하고 남편이 그에 따르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생소하고 어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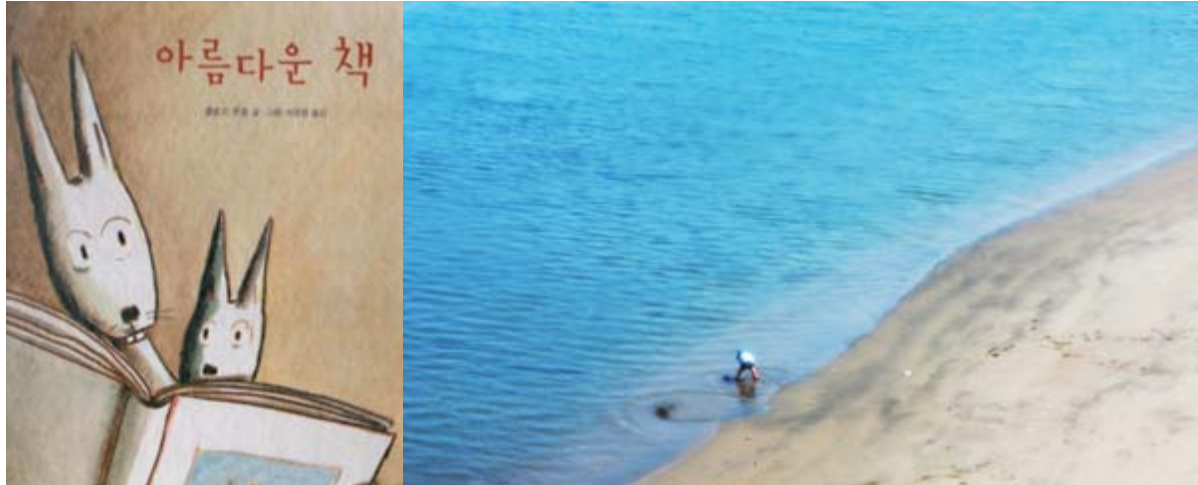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른 식구보다 더 지혜롭거나 더 강해서가 아니다. 옛날 왕조시대나 지금의 북한에서는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 오늘날 가정의 권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의논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되, 의견이 엇갈리면 의장이 최후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의장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다. ☺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문화포럼 대표이사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 Contents

WORLDVIEW · APRIL · 2012



## WORLDVIEW

2012년 5월호 WORLDVIEW 통권 143호



표지인물  
산더 호리훈

〈월드뷰〉는 우리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OVER STORY

10 기독교세계관 좌담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나침판입니다

## SPECIAL

- 16 성경적인 남성상\_이와수
- 20 아버지입니까?\_김성목
- 24 아버지 학교를 통한 은혜\_김영배
- 27 우리 아버지 언제 죽노?\_조용근
- 30 아들 수도 없는 마흔이다\_김건주

## COLUMN

- 04 대표주자 칼럼 아버지와 권위\_손봉호
- 08 발행인의 글 아버지라는 이름의 영웅\_김승욱
- 42 대중문화 속 가족이야기 21세기형 현대적 가족이란?\_박진규
- 45 그림책이야기 아름다운 책\_현은자
- 48 미술이야기 김덕기의 즐거운 우리집\_서성록
- 52 음악이야기 배움과 소나타\_이경원
- 56 영화이야기 양극화 사회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영화를 만나다\_강진규
- 59 가족학이야기 행복을 위한 내려놓음\_김성은

## CULTURE

- 38 포토에세이 어머니의 바다\_정일권
- 65 유머 1등 칸의 도착지\_손봉호

## BOOK REVIEW

- 62 서평 너의 죄를 고백하라\_이상웅

## NEWS

- 66 월드뷰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실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자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김건주  
편집위원 김승태, 김혜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이상정  
기자 임지연  
녹취 김아리나, 오은주  
사진 정일권  
디자인 황정희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facebook.com/cworldview)



# 아버지라는 이름의 영웅

아들 릭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딕이 말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 자녀의 아버지로 살다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세 아이가 다 하나같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 은혜를 중학교 때 홈스쿨링으로 교육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런지, 중학교에 올라가니 세계사 등 외우는 과목을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연구실에 데리고 가서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르쳤습니다. 피곤 할만도 한데 이제 좀 이해가 된다며, 팔짝팔짝 뛰면서 계단을 내려가던 모습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남의 자녀는 열심히 가르치면서, 왜

내 아이는 가르치지 않았는가하는 자책감이 들어서 앞으로 얼마나 내 품에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시간을 쓰겠다고 결심을 하고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힘만으로 전 과목을 가르칠 엄두가 나지 않아 동네 어귀에 홈스쿨링 함께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전화가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다. 후에 세계관동역회를 섬기는 동료 교수 3가정이 함께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둘째가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어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저도 피나 자녀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딕 호이트(Dick Hoyt)의 아들 사랑 이야기를 U-TUBE를 통해 보고 저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딕 호이트는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해 식물인간처럼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아들 릭(Rick)을 복지기관을 맡기라는 병원의 조언을 거절하고 손수 키웠습니다. 15살 되던 해에 달리고 싶다는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휠체어에서 “아버지, 달리면서 나는 평생 처음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 말에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몸이 되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42.195Km를 완주했습니다. 그 후에 철인3종 경기에 도전했습니다. 수영을 배워,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워 허리에 묶고 수영을 했습니다. 6살 이후에 자전거를 탄 적도 없던 아버지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딕 호이트는 아들 릭을 데리고, 철인3종 경기(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를 6번이나 완주했고, 단축3종경기는 무려 206회, 그리고 마라톤 풀 코스를 64회나 완주했습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24년 연속 완주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 의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릭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딕이 말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서 딕의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하여서 은총이 아빠 박지훈 씨도 철인3종경기에 도전했습니다. 한국의 딕 호이트라고 불리는 박지훈 씨가 은총이 같은 아이를 위한 복지기 관립을 위해서 달린다는 것이 <시사매거진 2580>에 소개되고, <우리 은총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지연의 피플 INSID>에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호의 '어머니'에 이어서 이번 호는 '아버지'를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가정의 달에 아버지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한 편 소개합니다. 작년 가을에 나온 <Coureous(용기와 구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목사가 세운 파이어 프루프 영화사가 만든 것인데, 재미와 감동이 어울려진 영화입니다. 한 작은 도

시의 4명의 경찰 가정을 소재로 하는데, 딸 에이미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아버지됨의 중요함을 깨달은 한 경찰 아버지가 미국판 아버지 학교를 촉구하는 영화입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보호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합니다. 진한 감동과 흥미까지 더해져서 온 가족이 함께 볼 만한 영화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 경제사학회 회장역임.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정책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나침반입니다

산더 흐리훔(Sander Griffioen)과 헝크 헤르세마(Henk Geertsema) 교수는 신칼빈주의(Neo-Calvinism)의 본산이며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체계화시킨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20년 이상 함께 철학을 가르쳤다. 이들은 자유대학교의 창시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나 그에 앞서 이 운동을 일으켰던 흐론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er)에 이어 신칼빈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개혁주의 기독교 철학을 정립한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와 디렉 볼렌호벤(Dirk H. Th. Vollenhoven)을 이은 3세대 기독교 철학자이다. 특히 캐나다의 기독교 학문연구소(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와 미국의 칼빈대학교, 그리고 스위스의 라브리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 세계관 운동 확산에 이바지했다. 손봉호 교수와 함께 공부하며 오랜 우정을 나누어 왔으며, 총신대학교의 신국원 교수와 한동대학교의 최웅준 교수의 지도교수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미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하여 총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서강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지에서 강의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세미나를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유튜브에서 지난 세미나를 볼 수 있다. [www.youtube.com/watch?v=ktxRt8VBvPk](http://www.youtube.com/watch?v=ktxRt8VBvPk))

**Question**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관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Answer** 산더 흐리훔 세계관이란 인간의 삶이나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입니다. 19세기에 칼뱅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관점이 나타났습니다. 칼뱅주의는 세계관에 대해 말할 때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시기에 철학에서도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원론적인 사고가 철학에서부터가 아니라 세계관을 통해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흥미로운 것은 세계를 보는 방법이 개별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세계관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세계를 보는 광범위한 시각을 의미하지요. 철학적으로는 다원론적인 관점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세계관 역시 다양한 세계관 중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닙



니다.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은 다원론적인 세계 속에서 세계와 인간에 대해 바른 세계관을 제시할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Question** 세계관에 대한 좋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창조, 타락, 구속'의 도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Answer** 헝크 헤르세마 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두 가지의 요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 기독교적 세계관이 '관계'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에 대한 시각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반응하는 시각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에게 반응함으로써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자 구속자라는 사실이요. 우리는 이런 인식을 교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점은, 현실 가운데 '창조'의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세계가 있었고, 타락이 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 Amsterdam)

암스테르담 시 남부의 신시가지인 Boelelaan에 있다. 자유(vrije)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학문을 국가와 교회와 구분하여 두셨다는 "영역 주권" 사상을 따라 국가와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표방한 것이다. 모든 교육이 국가 재정과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대학교의 설립은 절대 쉽지 않았다. 결국, 모든 교육을 세계관에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 를 획득하기 위한 "학교투쟁"(de scholenstrijd)이라 일컬어지는 장기간의 투쟁이 벌어졌고 이를 통해 기독교 학교들은 법적인 인정을 획득했다. 자유대학교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서 당시 반혁명당(Anti-Revolutionary Party=ARP)의 당수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 1880년 10월 20일에 설립되었다.

카이퍼는 세속화된 국립대학들과 달리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인 토대에 근거한 학문을 수행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려고 몸부림쳤다. 또한, 단순히 개혁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신학교 설립에 만족하지 않았다. 개혁신학적인 원리에 근거해 모든 학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종합대학을 설립이 목표였다. 이와 같은 설립 이념을 카이퍼는 대학의 설립을 즈음하여 행한 강연에서 명시적으로 대내외에 알렸다. 강연의 제목은 영역주권론(sovereignty in the distinctive spheres of human life)이었는데, 주요 논지는 세 가지였다: 1)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 위에 홀로 주권적이며, 2)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으며, 3)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모든 삶의 개별 영역들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강연은 이미 널리 알려진 다음의 구절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치도 없다."

학사과정은 보통 네덜란드어로 진행되며 영어 과정도 있다. 석사과정 이상은 영어 위주로 진행된다. 네덜란드의 내각 인사와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수상을 역임한 얀 페터르 발케넨데(Jan Peter Balkenende)도 경제대학의 교수였고, 재정부 장관을 지낸 게리트 잘름(Gerrit Zalm), 저명한 정치인이었던 펴 포그튀인(Pim Fortuyn) 등이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했다.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Idols of Our Time)와 <자본주의와 진보사상>(Capitalism and Progress)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웃츠바르트(B. Goudzwaard)와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기독교와 예술> 등을 쓴 한스 로크마커(Hans Rookmaaker)도 이 대학교의 교수였다. 본래 암스테르담 시의 중심에 있었으나, 학생 수의 증가로 1973년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현재 2,500여 명의 교직원(academic staff)이 근무하고 있고 23,0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구속의 역사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항상 도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는 실제로 깨어짐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과 구속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창조는 과거 어느 시점에 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된 세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서 세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사고는 우리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깨어짐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나와 세계에 대한 바른 의미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회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학자나 지식인들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성도들의 현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좋은 생각이나 제안이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Answer** 산더 호리훈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점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그중 의과대학에 계신 한 교수분의 고백이 기억에 납니다. 그분은 논문을 지도하던 중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된 물질을 사용해 연구한 지도 논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갈등하다가 끝내 심사하기를 거절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날 모임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나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지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이러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Answer** 행크 헤르세마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복음의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다보면 그곳에서 현실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삶의 현장, 즉 직장이나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즉, 현실 가운데 창조가 무엇인지, 깨어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복음이 가진 세계관을 단지 사람들을 전도하고 회심시키는 것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Question**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과 결부되지 않는 것은 믿음과 이성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시각(세계관)에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적인 풍토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산더 호리훈 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에도 반 지성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오늘날 꽤 흔한 현상이지요. 학문의 세계와 성경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처럼 여겨집니다. 학교에 있는 저로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아카데미한 연구를 하려면 낯선 학문의 영역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행크 헤르세마 네덜란드의 교회에서도 이원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기독교 교리가 사람들의 삶 전반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생각에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그쳤다는 데 있습니다. 지식과 실제 삶의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회자들의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을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임은 분명합니다.

**Question** 교회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올바르게 교육되지 않는 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교회가 성도들 개개인이 부딪히는 현실의 삶보다는 영혼 구원과 성장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Answer** 행크 헤르세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부분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가 우리 삶 전체의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 개인은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Answer** 산더 호리훈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교회에 종답이 있는데 청년들이 그 종답에 올라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말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려는 그들의 열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 그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할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저 역시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 ‘관계’의 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관계에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심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Question**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산더 호리훈 저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 역시 대형화되면서 성도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복음적 선포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안락한 이야기 보다는 불편한 이야기를 가르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 믿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Answer** 행크 헤르세마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으로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영국 더럼(Durham) 주의 주교인 톰 라이트(N.T. Wright)입니다. 그의 저작들은 세계관을 통한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기원과 하나님에 관한 질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책이 그렇습니다. 그가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바는 “복음의 메시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신 '창조'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나아가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신학자로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의 책들을 통해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목회와신학」주관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월드뷰>를 통해 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최원준 편집장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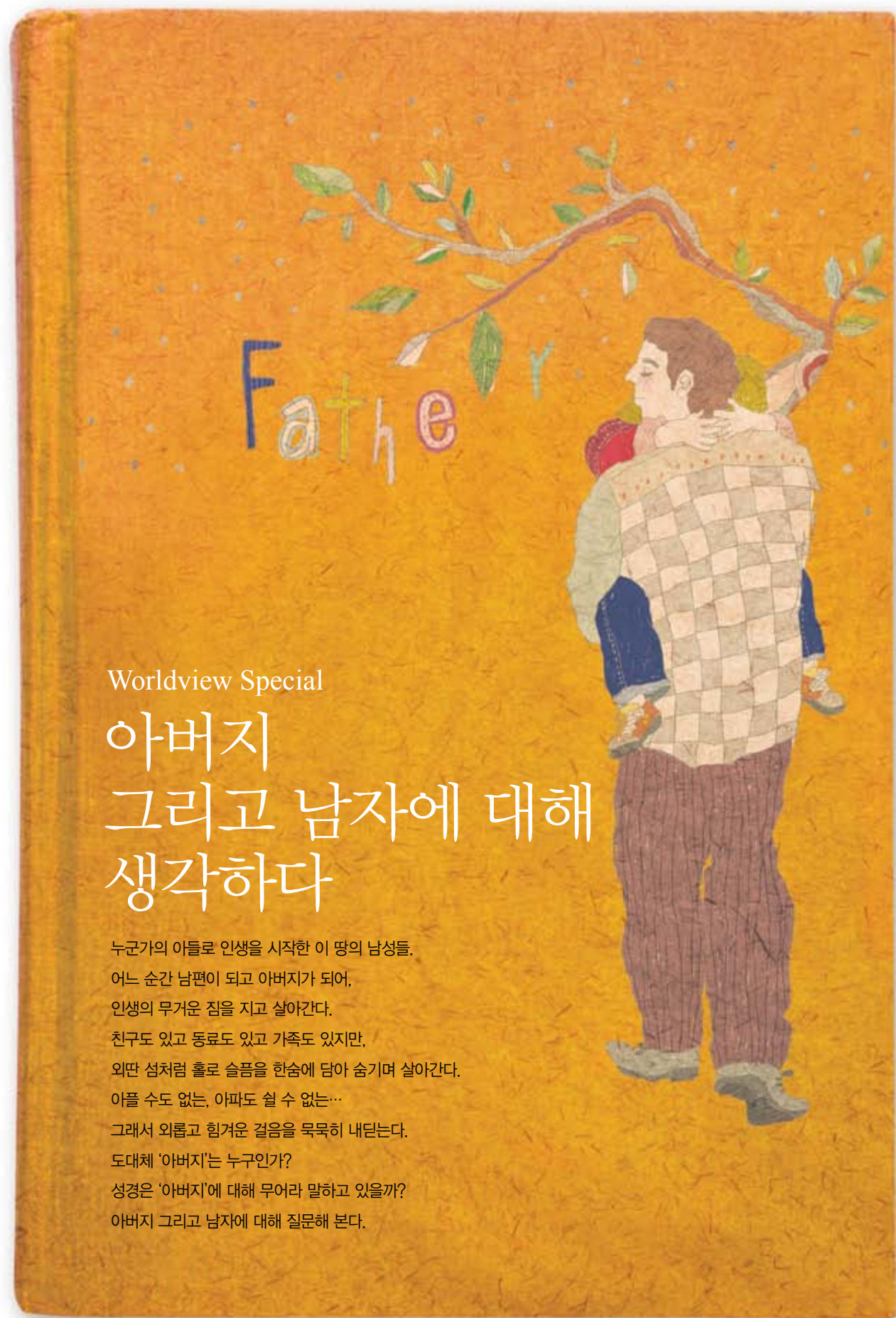
#### 산더 흐리홀(Sander Griffioen)

경제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헤겔의 사회철학의 종교적 국면을 연구한 The Rose and the Cross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마친 후 기독교 철학분야의 네덜란드와 캐나다, 미국에서 교육과 저술로 봉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전문 영역인 사회철학 분야에서 많은 학문적 이바지를 했다. 편저 및 저서로는 기독교 철학 역사를 다룬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Bringing into Captivity Every Thought>, 사회과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리한 <사회과학의 규범과 맥락 Norm and Context in the Social Sciences>, 세계관이라는 개념의 뿌리와 그 발전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그것이 사회과학에 어떻게 전용되었는가를 검토한 <세계관과 사회과학 Stained Glass: World Views and Social Sciences> 등이 있다. 아울러 풀러 신학교의 총장인 리처드 마우(Richard Mouw)와 함께 쓴 <다원주의와 지평: 기독교 공공의 철학 Pluralisms and Horizons : An Essay in Christian Public Philosophy>외에도 <지리와 세계관: 기독교적 정찰 Geography and Worldview : A Christian Reconnaissance>, 독일 철학자인 Karl-Otto Apel와의 공저 <윤리학에서의 권리의 위상: 다원주의 문화 속의 공공의 철학 What Right Does Ethics Have?: Public Philosophy in a Pluralistic Culture>도 중요한 저술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철학협회, 국제 칼빈주의 철학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 헨크 헤르세마(Henk G. Geertsema)

신학과 철학을 전공했으며 몰트만의 역사신학과 종말론의 철학적 배경에 연구인 <위로부터 앞으로 From Upward to Forward>라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마쳤다. 그 후 현대철학과 신학 가운데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과 신학적 해석학, 그리고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주력해왔다. 그는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인 Utrecht와 Groningen의 기독교 철학 교수와 자유대학교의 도예베르트 석좌교수를 20년간 역임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도예베르트의 철학이지만 인식론, 현대 과학의 인류학적 함의, 사회철학, 해석학 등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개혁주의적 철학의 관점에서 합리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지식의 인간적 특성(Het menselijk karakter van ons kennen)"와 "인간성 연구(Om de humaniteit)"와 유명 학술지인 Zygon에 "Cyborg: Myth or Reality" (2006)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은 논문과 <개혁신학과 성경신학연구 Reformed Theology and Biblical Studies> 등의 저술이 있다. 네덜란드 라브리 공동체 활동에도 동역한 바 있다. <http://www.alloflieredeemed.co.uk/geertsema.htm> 에 관련 자료가 많다.



Worldview Special

## 아버지 그리고 남자에 대해 생각하다

누군가의 아들로 인생을 시작한 이 땅의 남성들.  
어느 순간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외딴 섬처럼 홀로 슬픔을 한숨에 담아 숨기며 살아간다.  
이플 수도 없는, 아파도 쉴 수 없는...  
그래서 외롭고 힘겨운 걸음을 묵묵히 내딛는다.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인가?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 무어라 말하고 있을까?  
아버지 그리고 남자에 대해 질문해 본다.



# 성경적인 남성상

참된 남성상은 어디에 있는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남성상은 없을까? 남성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성경은 바른 남성상을 제시한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성의 바른모델이다. 남성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남성이 어떤 존재론적인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시다.

## 첫 피조물로서의 남성

### —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남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창조하셨다(창 1:26~28). 사도 바울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고전11:7)이라고 표현했다. 조직신학자 안토니 후크마는 “남성 창조에서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남자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투영(mirror)하고, 하나님을 대표(represent)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최초의 남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존재였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였다. 첫 피조물인 남성은 순결했고, 죄가 없었으며, 거룩했다. 오늘날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함과 죄성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남성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다. 첫 남성의 타락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은 빗나가게 되었으며, 남성이 지향해 가야 할 본질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거부해야 할 어그러진 남성상의 첫 출발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창세기 3장은 최초의 범죄에 대한 비극적인 설명과 그것이 몰고 온 파국적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였음에도 죄인을 대면하기 위해 오셨을 때 하나님은 남자를 찾으신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the man)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현재형)”라고 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정보를 묻는 차원을 넘어 고발

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청지기의 책임을 남용한 사실을 남자에게 상기시키신다. 아담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자다움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과거형)”는 질문을 통해 아담이 그의 ‘남자다움’이라는 청지기직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하와와 함께하는 가정에서 지도력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내가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도록 버려두었는지, 사탄의 유혹 앞에 있는 아내에게 첫 남성(아담)이 미친 영향력은 무엇이었는지를 묻으신다.

##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남성 - 족장

인류의 역사는 한 남성에게 의해 시작되었다. 최초의 남성은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은 첫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과 계속해서 언약관계를 유지하신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가정과 민족을 위한 언약 체결의 대표자로 남성을 선택하셨다. 언약의 대표자와 맺은 언약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졌고, 자신의 세대에 이루어진 축복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의 내용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전통과 관련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창 48:15, 대상 29:18)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남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자로서 가정의 중심이었으며 부족의 중심이었다. 남성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성경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데(고전 11:3)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가 아니라 ‘머리 뒀다’이다. 곧 아버지는 가정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나오는 ‘머리’(kephale)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족장이나 지도자를 가리킬 때 쓰였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는 권위의 의미가 있다. ‘머리 뒀다’이란 결혼관계에서 남편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가족을 이끌어야 할 우선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 가장 완벽한 남성 -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 완전한 남성상을 찾길 원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 모든 남성은 죄의 흔적을 지닌 흠 있는 자들이다. 믿음의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등 위대한 신앙인들에게서 흠 없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이상적인 남성상은 참사람이시며 참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 1)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왕은 질서를 유지해주며, 안정감을 마련해 주는 사람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를 이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시는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 선한 왕은 힘이 있는데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도



와주는 데 사용한다. 또한, 선한 왕은 모든 남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자(엡 2:3) 죄의 종이며(롬 6:17), 원수였던(롬 5:10) 사람들을 주님은 징벌하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자유롭게 하셨다. 왕의 왕으로서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한 왕이 되셨다. 세상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삶은 “포로 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눅 4:18)하시는 사랑의 왕이시다.



## 2)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화해와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간이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생겼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결 흠과 점이 없는 영원한 중보자가 필요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처럼 제사장직은 그리스도께만 속한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씻으

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기독교인의 정의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정의이다.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기다리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세태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보여주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시대에 요청되는 남성상의 중요한 모델이다.

### 3)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  
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를 자유롭게”(눅 4:18)하기 위한 사역을 하셨다. 사  
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진리를 깨닫도  
록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잘못된 전통을 따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의 헛된 논쟁을 바른 진리로 정리해주셨다(마 12:1-8). 생업의 터전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잘못된 전통에 매여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자유를 선언하셨다(요 4장).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부자 청년에게는 율법준수가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따름을 가르치셨다(눅 18장). 남성들은 사회 속에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주장을 펼 줄 아는 진정한 남성이 되어야 한다.

4)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성상은 거룩한 용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용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대의(大義)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죄(사탄)와 전쟁을 벌이셨다.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에 분노하신 예수님은 과감히 도전하셨다. 성전에서 잡사하는 무리를 내어 쫓으시는가 하

면, 사회적인 소외계층의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과도 어울리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기 위해 애쓰셨다. 예수님은 죄와 율법과 당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이셨다.

거룩한 용사는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아닌 자신의 사랑을 무기로 삼아 모든 원수를 멸하고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남성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남성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이 이러한 용사의 마음이다. 남성 우월주의를 내세우기 이전에 사랑을 통한 섬김을 통해 남자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남성들이어야 한다.

### 5)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희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자기 백성과 영원히 연합할 ‘거처를 예비하러’ 승천하시기 직전, 다음과 같은 우정 어린 말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이것은 사랑, 헌신, 약속을 포함한 연합의 말씀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가슴을 벅차게 만들어 주며, 용기를 채워 주는 친구이셨다.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눅 12:4)라는 표현을 통해 권위를 내세우는 자의 모습이 아닌 참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과 친구이셨다. 자신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마 11:19)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가까이 잘 알고 지내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다. 아프고 힘든 자들을 볼 때면 단순히 공허히 여기는 정도를 뛰어넘어 그들의 고통을 체휼하셨다(히4:15).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친구의 우정을 실천해 보여주신 분이시다.

### 진정한 남성의 역할:

## 가정과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남성상

참으로 남자다운 남자는 사회의 건설자이다. 남자가 가장으로서 굳건히 서고, 힘과 보호로 안정감을 제공하여 그의 가정이 질서 안에 있을 때 사회는 즉시 유익을 얻는다. 사회건설을 위해 남자다운 능력을 사용할 때, 세상은 더 좋고 더 안전한 장소가 된다. 교회를 이끌든지 가정을 이끌든지 간에 지도자로서의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범을 통한 지도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갖추게 될 때 권위가 부여되며, 가족을 공통의 목표 아래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첫 피조물인 남성은 온 땅을 다스리는 명령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 건설의 위탁을 받은 책임 있는 존재였다. 첫 피조물인 남성은 순결했고, 죄가 없었으며, 거룩했다. 현대 남성들의 목표는 창조되었던 순간의 남성상에 대한 회복이다. 책임 있는 존재로서 사회와 가정에 지도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미래는 남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자신의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만드는데 달려있다. 진정한 남자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남성이 많은 사회는 비전이 있다. 가정과 직장에서 자신의 영적 지도력을 바로 세워 하나님이가장 기뻐하시는 남성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



**이의수** 남성사회문화연구소 소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사랑의교회 가정사역 담당 목사.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 박사. 저서로,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한국경제신문), 『큐티하는 남자』(국제제자훈련원), 『남자 리뉴얼』(침례출판)이 있다.





## 아버지입니까?

봄의 입구에서 <월드뷰>는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이하, 아버지학교) 상임이사이자 국제운동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성목 장로를 찾았다. 오랫동안 아버지들의 위로자이자 멘토로  
사역해 온 그에게서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아버지학교는 1995년 10월, 두란노서원에서 처음 개설되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이 아버지학교의 출발점이었다.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며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잘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잡기 위해 아버지 부재의 가정에 아버지를 되돌려 보내자는 것이 아버지학교의 목적이다.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아버지학교를 열어 주로 기독교인들이 참석했지만, IMF 이후 아버지학교가 교회 밖으로 알려지면서, 비기독교인이 참석이 늘었다. 일반인들을 위한 아버지학교 개설 요청으로 2004년부터 '열린아버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3월 현재 약 22만 명이 넘는 아버지들이 아버지학교에 다녀갔다. 국내를 포함해 47개국 230개 도시에서 개설되었다.



### 잊을 수 없는 편지

김 본부장은 잊을 수 없는 한 아이의 편지가 있다고 했다. 몇 년 전, 한 사회단체와 함께 홀어머니들과 그분들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일이다. 어머니들과 자녀를 따로 떼어놓고 교육한 뒤에, 자녀에게 아버지께 편지를 숙제를 내주었다. 대부분 자녀들은 아버지께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편지가 있었다.

“네가 아빠라고? 이 짐승 같은 놈! 광우병 소만도 못한 놈아! 너도 이다음에 여자로 태어나서 똑같이 당해봐라.”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학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이들은 '남자란 저렇게 여자를 감싸고 보호해 주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한다. 딸은 여성으로서 행복을 느끼며 자란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은 아이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휴가나 병가도 없고, 정년퇴직도 없는 자리다.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이다. 남자로 태어나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는 바로 아버지라는 자리다. 남자로서 일터에서 남길 수 있는 그 어떤 영향력보다 강한 영향력을 남기는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리다.

아버지 노릇 하는 것이 어려운 것에 비해 아버지가 되기는 쉽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아버지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함에도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김 본부장은 아버지를 주목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 하에 4~5주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한, 아버지의 정체성과 신분을 되찾게 된다.



## 관계가 핵심이다

김 본부장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은 섬처럼 살 수 없다. 우리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관계는 접근과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타인이나 상황에 어떻게 접근하고 타인과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사람됨이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들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른다. 김 본부장은 이 땅의 아버지들은 체면문화의 희생자라고 했다. 체면문화는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적절히 거리를 두라고 가르친다. 통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수적이다. 소위 팔불출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가족을 칭찬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늘 염려하는 체면문화 아래에서 사람들은 타인에게 친절하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권위적이다. 자녀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나를 무시해'라고 반응한다. 아버지로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훈련되어 있지 않다.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가 되어 살아온 그들은 상처를 안은 채 살아왔다. 그 상처의 뿌리에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와 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상처가 대물림된다.

## 상처를 극복해야 한다

아버지들의 어려움을 치유해 온 김 본부장은 끝으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의 50/60대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세대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 그들의 수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버지 세대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셔 온 술의 절반이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고서야 가슴을 연다고 했다.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가 되어 살아온 그들은 상처를 안은 채 살아왔다. 그 상처의 뿌리에는 아버지가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버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접근과 반응의 역할 모델이 아버지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상처가 대물림된다.

김 본부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세 시제를 살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것이다. 다가오는 미래가 현재와 달리 더 좋은 상황이 되려면 현재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를 바꾸지 않고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를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에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재해석하면 된다. 김 장로는 요셉의 예를 강조했다. 요셉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현재 삶에서 과거와 싸울 필요가 없다. 과거를 지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과거를 재해석하면 된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아버지는 축복하는 사람임을 강조했다. 부모에게 축복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다. 아버지는 아이의 거울이다. 아이는 아버지가 비춰주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자화상을 형성해 간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라고 강조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아버지가 한 걸음 나아가면 가족은 두세 걸음 다가온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㉞



김건주 본지 편집인, 문화평론가, 목사. 한양대학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공부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출판기획자, 문화사역자로 사역해 왔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CUP 출판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 아버지 학교를 통한 은혜



“아빠 저 미국에 가서 공부할래요.”

어느 날 큰애가 엄마랑 이야기가 다 됐다면 나에게 불쑥 통보하듯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소리냐? 너 이제 겨우 17살인데 미국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지금까지 네가 보여준 그런 태도로는 안돼! 한국 공부에도 적응 못 하면서 무슨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는 거냐? 안되는 이유 첫째, 너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아. 시간만 끌고 앉아 있지. 아무런 결실이 없어. 둘째, 친구들과 노는 데만 관심이 있지. 진짜 열심히 무얼 하겠다는 의지가 약해. 셋째, 넌 미국 가는 것이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현실에서 도피하려 하는 거야. 미국 가서 노력할 그 노력을 지금 여기서 하지 그러느냐?! 너 같은 녀석은 미국 가서도 안 돼! 정신자세가 틀렸어.”

이런 나의 질책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내와 큰애의 합작 때문에 큰애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떠났다. 그 당시 내가 큰애한테 가졌던 불만을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부끄럽다. 왜냐하면, 당시 내가 가졌던 불만은 편협한 내 기준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 우리 어릴 적엔 과외수업, 학원 한번 안 가보고도 다 했다! 그때는 부모한테 공부 하지 않는다고 꾸지람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 너희는 세상이 좋아 부족한 것 없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 오느냐?”

“고작 한다는 것이 그거냐? 형편없는 놈!”

큰애와 나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고 그 애가 미국으로 간 이후는 더더욱 대화의 기회도 없어졌다. 나는 ‘요즘 애들은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키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좋은 직장 가지도록 뒷바라지해주고 장가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무적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하는 자식은 거기까지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2004년 아내와 주위의 권유로 아버지학교에 입소하게 되었다. 오래전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불안전했던 나의 신앙은 아버지학교를 계기로 마침내 말씀의 참뜻을 가족에게 적용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목사님들의 말씀과 강사들의 간증을 통해 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매우 편협한 한낱 아무 쓸데 없는 공허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울부짖고 한탄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도 영원히 그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내가 너무 큰 가치를 두고 있었기에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에게 내가 너무 소홀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Q.Q.를 통해 내면의 쓴 뿌리들을 전부 드러내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은 나를 회개하도록 하였고 이후 아내의 계속된 기도는 특히 큰 힘이 됐다. 하나님은 광폭한 독재자나 잔인한 군주처럼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굴



복시켜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임을 깨닫게 되었다.

과연 내가 내 자녀에게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승복시켰는가? 아버지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누가복음 6장 4절 말씀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자녀를 대하고 양육하는 나의 기준은 결국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말씀의 묵상 및 기도에 전념했다.

그전에는 내가 우리 애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로서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의 기준은 물질이었다. 내가 그렇게 자랐고 나의 부모가 그것 때문에 고생했으니 나의 쓴 뿌리는 물질문제가 주는 고통과 쾌락의 토양 속에 고착되어 있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사랑을 과연 나는 어떻게 우리 애들에게 전달했던가에 깊이 반성했다.

과연 내가 틈만 나면 용돈을 주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랑의 표현을 해왔던가. 나의 가장 값진 것이 아닌 가장 편하고 싼 것을 내 아이들에게 주지 않았던가. 애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빠와의 시간을 나는 별로 준 적이 없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줄 만큼 과연 내가 내 애들을 사랑했던가? 길게 대답해야 할 질문만 받아도 귀찮아서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무심코 애들에게 뺄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애들이 아빠를 피하고 거리를 두게 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애들을 키웠던 것이다.

아버지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거쳐 나는 주님께서 그의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자녀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배웠다. 어느덧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어휘도 폭력과 증오와 한탄으로부터 온화와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고 있었음을 스스로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아버지학교 후 나의 생활은 점차 가족을 중요시하는 생활로 바뀌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큰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황과 고통을 겪고 점차 이러한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점차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부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애한테서 어느 날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저 이번 중간시험에서 A 받았어요.”

“저 이번 학기 All A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겠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 드려. 아빠가 불쌍해.”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정말 아버지학교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은혜의 학교라 생각된다. ㉞



김영배 한국경영자  
총협회 상임부회장,  
조지아대학교 경제  
학 박사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도에 태어났다. 다섯 살 되던 해 6·25전쟁이 나자 아버지는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을 타셨다. 몇 년 후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가 귀국해 헤어졌던 우리 가족은 대구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하지만 반가움은 잠시였다. 불행하게도 나는 ‘아부지’라고 다정스럽게 불러보고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기대와 달리 아버지는 (그 당시 아버지 대부분이 그러하듯)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불쌍한 무학자였다. 일본 오사카에서 직조공장의 기사로서 배워온 기술 덕분에 직장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대구시 변두리 지역에서 근근이 입에 풀칠하는 가난 속에 살았다. 문제는 아버지의 술버릇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돌아올 때 가끔 술을 드시고 오셨다. 술을 드시고 온 날에는 어머니와 가족을 향해 갖은 욕설을 하셨다. 밥상이 날아가고 가구가 부서지는 일들이 있었다.





당시 사춘기였던 나는 몹시 불안했고 아버지가 더없이 미웠다. 그래서 아예 학교에 늦게까지 있거나, 동네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주무실 때를 기다려 집에 들어갈 때가 잦았다. 집으로 가다가 아버지가 술 취해서 고함치거나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돌려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혼자 걸으면서 이렇게 되뇌곤 했다. “우리 아버지 언제 죽노!”

술이 깨고 난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 없는 평상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졌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일자 무식자로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큰소리 한번 쳐보지도 못해 만만한 우리 가족을 상대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럭저럭 나의 사춘기를 잘 넘기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던 나의 십 대를 그나마 잘 견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성인이 되어 아내와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게 되었는데, 아들이 대학입시에 번번이 실패하여 삼수를 하게 된 일이 있었다. 아들이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대충 대충하는 것 같아 잦은 잔소리와 손찌검을 할 때도 있었다. 내가 그 나이 때는 정말 가난하고 불안한 환경에서도 어렵게 공부하여 오늘날의 내가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의 모습을 보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다. 어떤 때는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아들의 컴퓨터를 보게 되었는데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내가 했던 말 하고 똑같냐? 나조차도 기가 막혔다. 아내는 너무나 놀라 도대체 아들에게 어떻게 했기에 저런 말을 써놓았냐고 다그치면서 나를 얼마나 나무라는지! 그 후 아내의 강압에 못 이겨 『아버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것마저도 거절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기에….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아버지학교는, 첫째 주에 나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다. 지난 1984년 말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내가 십 대 때 했던 말 “우리 아버지 언제 죽노!”에 대해 고백하게 되었다. “그 때는 정말 미웠어요. 그러나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내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와 합장을 해 드렸으니 다시는 두 분이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쉬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다.

그다음 주에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삼수하는 아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못해서 너에게 그만 손찌검까지 했구나.”라고 쓰고, 나의 어려웠던 십 대 때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썼다. 또, 어릴 때부터 커가는 모습을 기억하며 아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도 함께 썼다. 아버지학교에서는 이 편지를 아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 아들의 집 주소로 말이다. 물론, 내가 사는 집 주소이기도 하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웬수(?)같은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정제불명의 우편물을 받고서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자기 방문을 박차고 달려나와 나를 끌어안고 “아빠 잘못했어!”라고 울부짖었다. 아들과 나는 정말 한참이나 얼싸안고 평평 울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나는 베프(베스트프렌드)가 되었다. 매일 도시락 2개를 싸들고 다니는 아들에게 “너는 최고야! 우리 집 대들보야!”라고 격려하고 안수기도까지 해주었다. 그 후 아들은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았다. 3개월 후 치러진 수능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당시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했구나!’하는 실수를 깨우치고 후회를 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생각된다. 다시 한번 외치고 싶다 “우리 아버지 언제 죽노!”



조용근 세무사, 현) 천안합재단 이사장, 전)대전지방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 회장 역임, 2006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나눔봉사부문 수상.







##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세상이다.

젊은이 세대를 위로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등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오랫동안 지켜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년 세대를 위로하는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제목만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 40대의 인생 보고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어 버린 중년 세대에 보내는 격려를 담고 있다.

중년 이후의 삶, 이른바 '서드 에이지'에 관해 꾸준히 연구해 온 이의수  
박사가 이 책의 저자다. 〈월드뷰〉는 저자를 만나 책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중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담 · 정리: 김건주 편집장)

“책에 담긴 15개의 스토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힘들고 아팠다는 것을 느꼈으면 합니다.”

### 마흔, 원하는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

‘마흔’은 중년을 상징하기 위해 저자가 특별히 선택한 단어다. 3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를  
충칭하는, 즉 중년을 상징하는 단어가 ‘마흔’이다. ‘서드 에이지’ 전문가답게 저자는 서드 에이지를  
기준으로 ‘마흔’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람은 태어나 25세까지 학업과 적응의 시기를 갖습니다. 지식 습득이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25~40세까지는 획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0세 이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의 힘과 결단,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  
다. 40세까지는 어찌다 보니 흘러온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 것  
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세 이후에는 자신이 자신  
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흔’은 인생 전체에 있어 주  
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힘에 겹다.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다.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래를 듣고 부르며 성장해 온 세대가  
지만 노래는 노래로 남았고 현실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마흔’에게 위  
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책을 집필한 것이라고 한다. 무언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감하  
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마흔 이후 남자의 생존법이란 제목으로 문화일보에 3년 동안 칼럼을 연재한 것이  
이 책을 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칼럼을 쓰는 내내 중년 세대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  
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기보다는 공감의 자  
리이길 원했습니다. 올해 초 저의 칼럼을 주목해왔던 출판사 관계자로부터 40대를 위  
로하고 공감하는 책을 출간하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  
니라 공감하는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책에 담긴 15개의 스토리는 사역의 현장에  
서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  
면서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힘들고 아팠다는 것을 느꼈으면 합니다.”





#### 인생의 아픔에 대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저자는 이 책이 30대에게는 곧 현실이 될 중년에 대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집을 살 때는 모델하우스 여러 곳을 방문해 보고 상의하고 결정하고, 자동차를 살 때는 전시장을 이곳저곳 돌아보고 시승도 해보고 긴 토론 끝에 결정을 하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한, 저자는 20대의 아픔은 40대의 아픔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청춘의 아픔은 내일의 가능성이 될 수도 희망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흔의 아픔은 다르다.

“참 아픈 청춘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두 해 겨울을 담요 한 장으로 견디고, 1,500 원이면 먹을 수 있던 식사도 부담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아픈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갖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올해 초 어느 날, 저의 스케줄을 살펴보았습니다.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가득 차 있는 일정.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아파도 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플 수도 없는 인생이구나, 아파서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춘의 아픔과 마흔의 아픔은 다릅니다. 정말 무너져서, 상처 나서 아픈 겁니다. 이 아픔을 조절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중년 세대는 계속해서 현신을 요구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돌봄이 부족했습니다.”

중년에 대한 저자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다. 저자는 ‘중(中)년은 중(重)년이라서 주저하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어느 세대보다 사명과 소명에 적극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된 것을 즐기보다 앞으로의 일을 더 살피야 함을 이야기했다.

#### 감기 걸린 마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감기 걸린 마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과 두통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열이 올라 온몸이 쭈시고 아프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다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는다. 아프고 힘든 데 말이다. 이처럼 어쨌든 견뎌야 하는 게 마흔 이후 남자들의 삶이다. 다행인 건 감기는 언젠가는 낫는다.

그런데 저자는 중년 남성이 걸려야 할 ‘감기’는 따로 있다고 했다. ‘감사’와 ‘기쁨’의 감기가 그것이다. 감사와 기쁨은 같은 현실도 다르게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정말 소중한 태도다. 지금 누리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기쁨은 절로 따라온다. 저자의 마지막 말을 전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함께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맞아, 맞아.’라는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후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 본 기억이 까마득한 중년 남성들에겐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괜찮아.’라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실패해도 좌절해도 무조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수용과 긍정’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책 없이 다 괜찮을 거라는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전력을 기울였으니 괜찮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왔으니, 당신은 괜찮다. 무릎 꿇이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아주 괜찮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과 두통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열이 올라 온몸이 쭈시고 아프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다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는다. 아프고 힘든 데 말이다.  
이처럼 어쨌든 견뎌야 하는 게 마흔 이후 남자들의  
삶이다. 다행인 건 감기는 언젠가는 낫는다.





# 춘계학술대회 및 한중국제학술대회



성경적 세계관을 학문에 적용한 결과와 고민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  
2012년 춘계학술대회 및 한중국제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학회 주제:** "기독교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基督教在当代社会中的作用)"

**춘계학회 주제:** 기독교 학문의 연구 현황과 과제 Ⅲ

1. 법학분야 2. 의료분야

**일시:** 2012년 5월 18일(금)~19일(토) 10:00~18:00

※ 5월 18일(금) 국제학회(중국 절강대학교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 공동주최)

※ 5월 19일(토) 기독교학문학회(대학원생 논문발표, 주제강연 및 논평, 분과별 발표)

**장소:**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절강대학 기독교타문화연구소,  
기독교학문연구원

**주관:**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절강대학교)

## 국제학회 일정표 (5/18, 금)

시 간	일 정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환영사, 축사	
14:10~15:40	PART 1 (중국측 발표)	발제별 30분 (논찬포함)
15:40~16:00	중간 휴식	
16:00~17:30	PART 2 한국측 발표	발제별 30분 (논찬포함)
17:30~17:50	종합정리	
17:50~18:00	폐회사 및 광고	

## 춘계 기독교학문학회 일정표 (5/19, 토)

시 간	일 정
09:30~10:00	등 록
10:00~12:00	대학원생 논문 발표회
12:00~13:00	오 찬
13:00~14:00	개회/시상식
14:00~15:00	주제강연 및 논평 이국운 교수 김민철 원장
15:00~18:00	분과별 발표회(9개분과/ 30명)
18:00~19:00	만 찬

※ 상기 세부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02-3272-4967(사무국), 010-4195-1769(학회담당 간사)  
gihakyun@daum.net, info@worldview.or.kr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보기  
**월드뷰**  
WORLDVIEW

##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

제40335호

발송유효기간  
2012.5.1~2014.4.30

용산우체국

## 받는 사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월드뷰 담당자 앞

□□□□-□□□□



※독자 후기를 보내실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정보	상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출금일자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월납입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에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야 함입니다.
2. 출금일에 위와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일에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일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까.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까.
5. 출금일에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을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까.

7. 출금일에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되도록 하여 출금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기록을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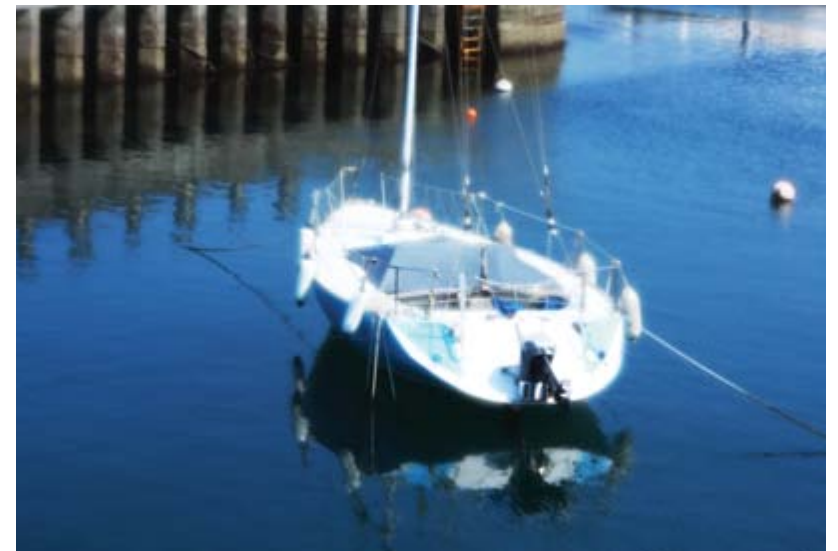


# 어머니의 바다

내가 기억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파스한 시선 가운데  
마음껏 해변에서 뛰어 놀고 있던 어린아이..  
에메랄드 빛처럼  
촉촉하게 내 마음을 설레게 해 주었던  
푸른바다와..  
내 안에 가득한 상념과  
피곤에 지친 마음들을  
쉬게해 주었던  
투명했던 오후의 고요한 빛..  
.  
.  
귀를 스치는 바람소리마저  
아름다운 하모니를 듣는것처럼  
포근하고 파스했던,  
그렇게 다가온 아타미의 첫 인상이었다.

정일권

일본사진예술전문학교 초상사진과 졸업, 도쿄디자인전문학교 비주얼디자인과 졸업  
블로그 <http://blog.naver.com/sg80350>





## 21세기형 현대적 가족이란?

### 시트콤 <21세기 가족>과 <모던패밀리>로 가족의 변화 "미리보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전형적인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평범”한 모습의 가족과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요? 이미 변화한, 또 앞으로 변화할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번 호에는 이런 생각에 도움을 줄 만한 시트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21세기 전형이라며 보여주는 가족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앞 뒤 집에 모여 사는 아버지와 딸 네 집 식구들이 주요 등장인물인데요, 50대 후반의 아버지 덕화는 은퇴한 톱스타 연예인으로, 이혼 뒤 혼자 살다가 연예인 시절 10년 넘게 자신의 팬 클럽 회장이었던 은미와 1년 전 재혼해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은미는 뒷 집 사는 큰딸 금표와 동갑내기로서 덕화와는 스무 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30대 중반의 금표 네도 재혼가정입니다. 첫 결혼에 실패한 전업주부 금표는 역시 이혼 경력이 있는 정신과 의사 성기와 재혼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애쓰며 삽니다. 이 집에는 세 명

지난 3월 중순 케이블채널 tvN에서 시작한 <21세기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로 20~30대 젊은 시청자층을 타깃으로 삼아 항상 참신하고 때로는 파격적인 형식과 내용을 시도하는 tvN이 새롭게 내놓은 시트콤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여기서 보여주는 가족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내놓는 광고 문구들에서도 그런 포부가 엿보입니다. “뻘한 이야기는 가라. 우리는 이들을 21세기 가족이라 부른다.” “눈치 보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속사정은 물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던 우리 가족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다루되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처럼 가식적이고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불편하고 껄끄러운 부분까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의 자녀가 있는데 성기와 금표가 각각 지난 결혼에서 얻은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고, 금표와 성기가 재혼해서 낳은 막내딸이 하나 있습니다.

“돈 많은 아버지는 늘 힘이 세다.” “새엄마뿐만 아니라 원래 가족이 웬수다.” “21세기 자식(!)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도 바쁘다.” “21세기 가족의 화두 - 性을 말하다.” 지금까지 방송된 에피소드의 소재목들입니다. 아직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분명하지는 않습디만, 유쾌함과 가벼움이라는 시트콤 장르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면서 가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다뤄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방송된 것만 놓고 본다면, 21세기 전형적인 가족에게 이혼과 재혼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덕화 네와 금표 네가 모두 재혼가정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혼이라는 건 별다른 갈등의 요소가 아닙니다. 금표 네 아이에게 새엄마, 새아빠의 존재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여느 집 엄마, 아빠처럼 스스럼없이 대합니다. 처음부터 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재혼가정이란 건 대화나 행동에서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과 “새 할머니”의 관계도 너무나 쿨(?)합니다. 나이 어린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다가도 피부마사

지, 클립, 장난감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알고 챙겨주는 “철없는” 할머니에게 별명까지 불러가며 금세 친해집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아무렴 어때냐”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큰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개의치 않습니다. 재혼으로 말미암은 갈등이 있다면 금표와 새어머니 사이 정도입니다. 동갑내기인 금표에게 “하나 엄마”라고 부르며 어른 노릇 하는 은미를 두고 금표가 중얼거립니다. “우리 아빠하고 같이 산다고 진짜 우리 엄마 된 줄 아냐!” 하지만 이 둘 사이도 그리 심각하거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이해의 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TV 드라마의 관심은 이혼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나 가족들이 겪을 고뇌와 갈등을 그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혼가정을 잘 꾸려갈지의 문제로 옮겨간 듯합니다.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는 텔레비전의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성기 부부와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너무도 대등한 부모·자식 관계라든지, 덕화와 금표 네가 한 데 모여 사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모계 중



심으로의 재편 등은 과장되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최근 우리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1세기가족>이 정말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려지는 내용을 우리 사회가 모두 용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TV 속에 그려질 가족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짐작하게 해 주는 시트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드(미국드라마) <모던패밀리>인데요, 3년 전부터 미국 3대 지상파 네트워크 중 하나인 ABC에서 방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21세기가족>이 처음 방송되었을 때 미드 팬들은 <모던패밀리>를 배긴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을 정도로 두 드라마는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연상연하 재혼부부가 그렇고, 세 아이를 둔 딸네 가족 구성원들의 캐릭터도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빌린 “모큐멘터리(mocumentary)”라는 방식까지 비슷합니다. 다만 더 추가된 것이라면, <모던패밀리>에는 아들네 가정의 등장하는데, 그 아들은 동성애자로서 파트너와 함께 베트남에서 입양한 딸과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21세기가족>이 그리는 재혼가정에 덧붙여 <모던패밀리>는 동성애, 다문화의 요소까지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추가한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드라마에 대한 미국사회의 반응입니다. 시청률에서도 언제나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평론가들에게도 꽤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가족과 함께 보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에미상이나 골든글로브상도 수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코스비쇼>와 비교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항상 유쾌하게 그려지는데, 굉장히 이질적인 가족 구성원들이지만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다름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21세기가족>이나 <모던패밀리>가 이 시대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다가올 미래에 전형적인 가족이 어떨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두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뒷집만 지고 있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말세 타령을 하거나 “평범”한 모습을 벗어난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교회 밖에선 이미 이런 가족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아쉬워하고만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이미 교회 한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21세기가족>과 <모던패밀리>. 비록 가벼운 시트콤이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아름다운 책

**클로드 부종 글, 그림.  
최윤정 역. 비룡소 출판.**

흔히들 그림책은 어린아이가 보는, 그림이 많은 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림책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그 매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출판사 사장님은 1980년대에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는데 어느 날 교보문고에 가서 영국 작가 찰스 키핑의 그림책을 우연히 접하고는 놀라움과 충격을 받고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그림책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지금은 그림책 작가이자 출판가로서 한국의 그림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클로드 부종의 「아름다운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이야기의 줄거리보다는 주로 작품의 미학적 특성에서 옵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그림책에는 세 가지 언어가 존재합니다. 글의 언어, 그림의 언어, 그리고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언어입니다. 많은 작가는 주로 글의 언어에 의존해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작가들은 글과 그림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세 번째 언어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글과 그림 언어를 더 잘 읽고 쓰기 위해서는 배움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제3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난 독자는 그림책의 언어에서도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클로드 부종은 제3의 언어를 만들어 내는데 뛰어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형 에르네스트와 아우인 빅토르라고 하는, 의인화된 두 마리 토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에르네스트가 동생 빅토르와 함께 책을 읽기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그림책을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본문의 그림 내용을 장면별로 소개합니다.

- 1장면: 에르네스트가 책을 집에 가져옴.
- 2장면: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생 빅토르와 함께 책을 펼쳐 읽기 시작함.
- 3장면: 책 속에서 자기와 같은 토끼들이 즐겁게 구슬치기를 하고 있음.
- 4장면: 책 속의 배고픈 토끼에게 여우가 싱싱한 당근 한 자루를 가져옴.
- 5장면: 책 속의 날개 달린 토끼들이 구름 속을 떠다니고 있음.
- 6장면: 책 속의 어떤 토끼가 무시무시한 초록용을 때려눕힘.
- 7장면: 동생 빅토르가 그 장면을 보고 황홀해함.
- 8장면: 둘이 같이 다시 책을 들여다 봄.
- 9장면: 책 속의 토끼가 무서운 사자와 여우를 홀라후프 속으로 뛰어들도록 훈련하고 있음.

- 10장면: 책 속의 큰 토끼가 콩알만 한 여우들을 가지고 놀고 있음.
- 11장면: 여우가 토끼 굴 앞에 나타나 책 속에 푹 빠진 두 토끼를 바라보고 있음.
- 12장면: 여우가 토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 13장면: 토끼들은 두려움에 떨.
- 14장면: 형 에르네스트가 책으로 여우의 머리통을 내리침.
- 15장면: 형이 반쯤 정신을 잃은 여우의 주둥이에 책을 쑥 박음.
- 16장면: 여우가 책을 입에 문 채 도망을 친. 두 토끼는 책을 또 하나 빨리 구해와야겠다고 말함.



이 그림책에서 그림은 배경의 역할을 별로 하지 않지만 인물의 행동을 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자는 다양한 시점-글의 시점이 아니라 그림의 시점-으로 등장인물을 보게 됩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실제의 독자(우리)와 가상의 독자(토끼 형제)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책장을 넘기면서 토끼 형제들을 보기도 하고 토끼 형제와 함께 그들이 보고 있는 책 속의 등장인물을 보기도 합니다. 각 장면의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1, 2장면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는 토끼 형제를 보며, 3, 4, 5, 6장면에서는 토끼 형제가 보고 있는 그림책 장면을 보며, 7, 8장면에서는 다시 책을 보고 있는 토끼 형제를 보게 되고, 9, 10장면에서는 토끼 형제가 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11, 12장면에서는 책을 보고 있는 토끼 형제를 보고, 13장면에서는 여우의 시점에서 토끼 형제를 보고, 14장면에서는 토끼 형제와 여우를 보고, 15장면에서는 토끼의 시점에서 여우를 보고, 16장면에서는 토끼 형제를 바라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시점은 독자가 등장인물과 갖게 되는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자가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하거나 편안한 시각으로 혹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등장인물과 사건을 보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풍부한 문학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이 작품에서는 그림책이 어떤 매체인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냅니다. 에르네스트는 책을 처음 보고 달려드는 동생에게 “안돼 손 치워! 책은 조심해서 다루는 거야!”라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동생이 “그게 뭐 하는 건데?”

라고 묻자 에르네스트는 친절하게 “책은 읽는 거야. 글씨를 읽을 줄 모르면 그림을 보는 거고...자, 형이랑 같이 한번 볼래?”라고 권합니다. 지금 에르네스트는 그림책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장점 중의 하나는 모르는 언어로 쓰였어도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셋째, 형 에르네스트와 동생 빅토르의 대화는 두 종류의 책 읽기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책에 몰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종류의 태도가 항상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독서의 즐거움이 이 둘 모두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책 읽기의 즐거움은 몰입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도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생 빅토르는 순진하고 의심 없이 책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지만, 형은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책을 봅니다. 예를 들어, 책 속의 여우가 토끼들에게 당근을 가져오자 빅토르는 들뜬 나머지 여우의 입장이 되어 “토끼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라고 소리 지릅니다. 동생의 순진한 태도에 대해 형은 “흠, 나라면 그렇게 마음을

놓지 않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토끼는 여우한테서 도망을 쳐야 해.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라고 주의를 줍니다. 또 빅토르가 책 속의 토끼가 용을 때려눕힌 장면에 푹 빠져버리자 에르네스트는 동생을 흔들어 깨우고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라고 훈계합니다. 그러자 빅토르가 “... 믿는 척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은 돼?”라고 묻습니다. 지금 빅토르는 문학 비평가들이 말하는,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소위 ‘불신을 잠깐 거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불신을 잠깐 거둔 상태가 위험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끼가 콩알만 한 여우들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신이 나게 보고 있는 토끼의 등 뒤에서 진짜 여우가 달려든 것입니다. 그 둘은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에르네스트가 곧 정신을 차려 반격을 합니다. 에르네스트는 책을 들어 여우의 머리통을 내리치고 여우의 주둥이에 책을 쿡 쑥 박아 여우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망치는 여우를 보고 형제 토끼가 나누는 대화가 압권입니다.

에르네스트는 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봤지? 책은 정말 쓸모 있는거야.” 빅토르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빨리 또 하나 구해 와야겠어.”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덧붙여 말했지요. “그래, 껌테기가 커다랗고 딱딱한 걸로,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걸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에르네스트가 책의 실용적인 기능과 함께 심미적인 기능도 인정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던 에르네스트가 책이 주는 상상하기의 즐거움을 높이 사고 있으니까요.

이 밖에도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글과 그림 전반에 흐르고 있는 유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토끼 형제의 대화도 그렇지만, 함께 책을 읽는 토끼 형제의 모습은 유머러스하고 정겹기만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읽는 모습은 그들이 점점 더 책에 몰입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책을 읽기 시작할 때엔 형이 왼팔로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가 그 다음엔 형의 무릎 위에 동생이 앉아 있고 마지막엔 형의 오른편에 동생이 앉아서 책을 봅니다. 갑자기 늑대가 덤벼들어 위급한 순간에도 형은 동생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동생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장은 유머러스하게 표면 아래의 의미를 암시합니다. 즐겁게 구슬치기를 하는 책 속의 토끼들을 보고 빅토르가 부러워하자 에르네스트가 “그래, 눈알 굴리기 운동으론 최고지”라고 대꾸합니다. 예민한 독자는 에르네스트가 단순히 구슬치기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눈치챬니다. 독자도 지금 책을 보며 눈알 굴리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난 후 왜 작가는 책의 제목을 “Un Beau Libre”(아름다운 책)이라고 했을까 궁금해 집니다. 불어를 전공한 대학원 학생과 이 제목에 대해 의논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beau”에 “아름다운” 의미 이상의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 분량과 단순한 구도와 형태의 그림 그리고 짧고 쉬운 문장에 이토록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그림책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에게 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그림책 작가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을 누릴 수 있는 감각과 마음과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녀와 학생과 동료들 허락 하셨기 때문입니다. ☺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이해 1, 2>,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햇살은 눈부시게 빛나고 45.5x53cm Acrylic on Canvas 2012

## 김덕기의 ‘즐거운 우리 집’

김덕기의 작품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에 주목한다. 그의 행복은 아득히 먼 훗날 성취할 꿈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드라마로 제시된다. 그는 시(詩)로도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동화속에서나 볼 수 있을직한 인형같은 집, 그 뒤로는 구름이 한가로이 떠 있고 숲에선 새들이 실새없이 지저대고 마당에는 백화난만한 꽃들이 아우성이다. 마당에서 그네를 타거나 숨바꼭질을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를 띤다. 이것은 영화속의 장면이 아니라 김덕기의 그림속 이야기다. 캐나다의 아름다운 버차드 가든과 전주어도 손색이 없을만큼 그의 그림은 명량한 분위기와 화사함을 지녔다.

여러 회의를 작품전을 통해 그는 가족이 만들어가는 행복드라마를 줄곧 발표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정물과 인물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은유적으로 부부애나 가족애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점차 풍경속의 가족그림으로 발전해갔다. 매재도 담백한 수묵에서 시작하여 채색화를 거쳐 오늘의 유희로 안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가족그림은 그의 작품세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

김덕기의 작품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에 주목한다. 때마침 이혼율의 급증과 이혼가정 자녀들의 탈선 등 우리들의 가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사회의 세포로서 가정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가족간의 사랑이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 즉 살아 움직이며 감동시키는 것이며, 변화시키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의 행복은 아득히 먼 훗날 성취할 꿈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드라마로 제시된다. 그는 시(詩)로도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작은 집이지만 가꿀 수 있는 꽃과 나무들이 있어 만족하다./ 부유하지 않지만 나를 믿어주는 아내와/ 아빠와 엄마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 감사한다./딱딱하고 차가운 외부의 도전들이 조간신문처럼 찾아오지만/ 꽃피우고 떨어지는 사이에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훨씬 작아진다./ 오늘도 파란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그에게 있어 가족은 그림을 그리는 이유이자 활력의 발원지이다. 그가 선택한 모티브는 어찌 보면 특별할 게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다. 연을 날리거나 그네 타는 아이, 연못가의 가족, 곤충채집하는 아이,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는 부부, 들풀이 무성한 시골길, 가족의 나들이 등이 화면을 밝고 명랑하게 물들인다.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생활의 즐거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다.

작가가 그려내는 세상은 칙칙한 흑백의 세상이 아닌, 기운 충전한 색깔로 채색된 환희에 찬 세상이다. 그의 그림에는 ‘응달’이 없다. 흡사 눈이 부신 아침의 햇살이 영롱하게 빛나듯이 반짝인다. 수만개의 섬광이 수면 위에 움직이는 호수의 수정조각처럼 그의 그림은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다. 물론 그런 기쁨의 비밀은 가족에 있다. 가족이 작품의 줄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의미를 더해준다. 가족의 화목을 나타낸 작품으로 <즐거운 가족>, <햇살은 눈부시게 빛나고>, <꽃수레와 가족>, <즐거운 우리 집>, <봄의 노래>, <즐거운 오월>, <행복한 논과 밭 사이로> 등이 있는데 모두 웃음꽃이 피는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담고 있다. 그는 행복한 삶의 정경에 시선을 고정하며, 이것을 순박하게 실어낸다. 어쩌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기에 더욱 눈길이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에게 가정은 단순한 혈연집단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다.

### 당우리 풍경

그의 그림에 시골정경이 오토이 등장한 것은 경기도 여주의 자그마한 마을인 당우리로 작업실을 옮긴 직후부터이다. 작가는 그동안 재직해오던 보성고 교사직을 내려놓고 그의 고향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환경이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그의 그림에는 큰 진폭의 변화가 생겼다. 계절감각이 뚜렷해졌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자연의 싱싱함을 매일 만나면서 작가는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감성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들판에 핀 꽃의 찬란함과 아름답고 진귀한 풍경이 캔버스에 고스란히 담겨졌는가 하면 스튜디오 마당과 들길에서 접하는 백일홍과 과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공작꽃, 채송화, 패랭이꽃, 사루비아, 나팔꽃, 봉선화 등 여러 빛깔의 고운 꽃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 정월에 심겨진 과실수도 전에는 못보던 풍경이다. 마치 그림이 ‘색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떠들썩할 뿐만 아니라 알알이 박힌 색점들은 빛을 머금고 켹켹하게 살아난다.





위) 즐거운 우리집, 2012, Acrylic on Canvas, 65.1X90.9cm  
아래) 바다를 바라보며, 2012, Acrylic on Canvas, 200X200cm

화면은 어스뎃 색의 물결로 술렁이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노랑과 초록, 그리고 분홍이 어울리는가 하면 붉은 지붕에 파랑 점들이 들어앉고 청록색 나무에는 새빨강과 황금빛 나는 과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처럼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농촌으로 작업실을 옮기면서 잔잔하고 내밀한 분위기에서 과감한 표현을 주무기로 하는 화풍으로의 이행이 목격된다. 초기에는 짧게 찍어올린 것같은 터치가 일정한 두께를 형성하면서 화면을 덮어갔다면 근래에는 반듯한 도트모양이 정원과 들, 산과 나무를 장식하는 주된 요인으로 화면을 점유하

고 있다. 혼합된 색이 아닌, 물감 튜브에서 금세 나온 것 같은 원색들이 망막을 자극한다. 감정의 농도를 떨어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깔의 순도를 유지하려는, 아니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느껴볼 수 있다.

### 행복 드라마

그의 그림에 '화색'이 돌고 스토리도 한결 풍부해지면서 작품내용 또한 명료해졌다. 그림을 보고 있다면 마치 작가가 오늘 있었던 일을 조근조근 들려주고 있다는 인상이 다. 그가 들려주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가족과 지낸 하루의 모습이다. 화분에 물주고 정원을 가꾸는 가족, 초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부부, 그네타고 연을 날리는 아이들, 가족의 나들이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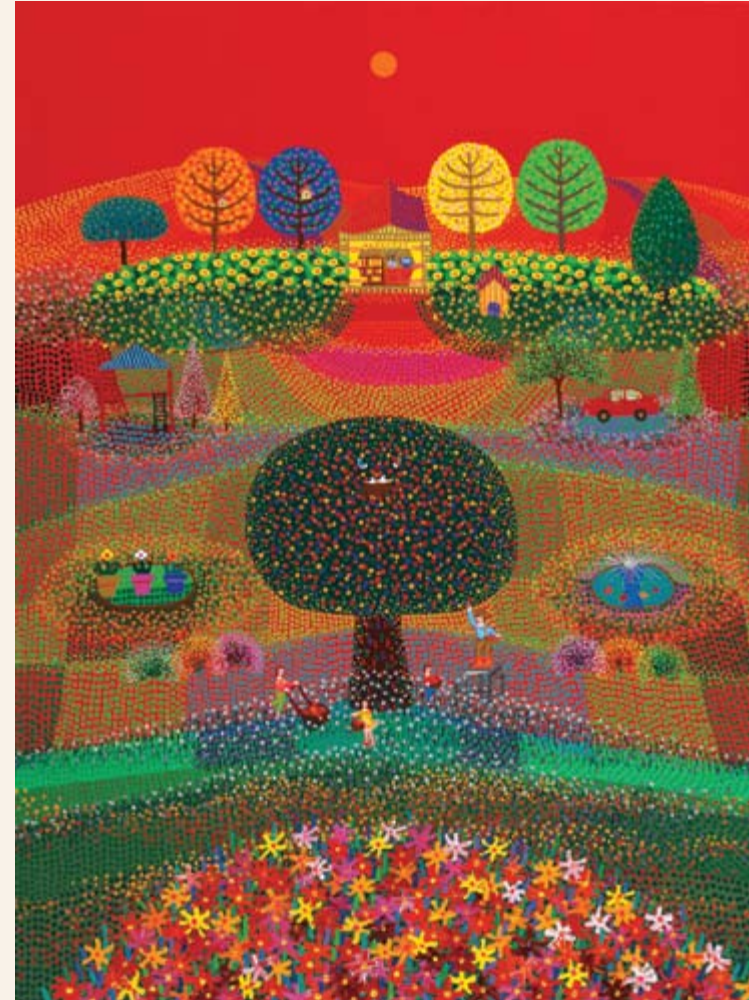
그중에서도 2백호의 대작 〈해 아래서-가족〉은 사과를 따는 남편과 잔디를 다듬는 아내, 그리고 부모 곁에 있는 두 아이를 그린 화기에애한 그림이다. 좌우로는 빨간 승용차와 오두막이 보이고 뒤편으로는 색색의 나무 한복판에 아담한 집 한 채가 눈에 띈다. 이들의 집 뒤편으로는 태양이 떠 있는데 이 모든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주어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는 드물게 해변풍경을 다룬 작품이다. 하얀 파도물결이 해안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바다로 여행온 가족이 환호성을 지르며 힘차게 달려가는 광경을 담았다. 방금 해안에 도착한 듯 가족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에 금세라도 뛰어들 것만 같다. 화면 하단의 몇 그루의 예쁜 나무들과 드넓은 잔디, 상단의 아스라이 먼 곳에 자리한 보트와 등대가 이처럼 평화스러울 수가 없다. 게다가 이들을 맞이하듯 하늘에는 양징맞은 뭉개구름이 두둥실 떠 있다. 색조면에서는 코발트가 화면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에워싸는 구성으로 바다의 청량한 느낌을 살려내고 있다.

〈즐거운 우리집〉은 중앙의 집을 중심으로 텃밭과 개집과 잔디 등이 펼쳐져 있는 평범한 구도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잔치집처럼 술렁인다. 화려한 색으로 치장한 꽃


과 나무, 잔디도 떠들썩할 뿐만 아니라 주위를 휘젓고 다니는 개들까지도 떠들썩하다. 새들이 지저귀고 분수도 힘차게 물을 내뿜는데 이런 분위기는 화목한 가족을 나타내는 보조 수단으로 기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색점이 알알이 박힌 잔디밭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그림이 이처럼 떠들썩한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엄마와 딸은 화분에 물을 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충분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모티브들은 작가가 실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그의 그림은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이나 느꼈던 일들을 기록하는 다이어리에 견줄 수 있다. 그림속에는 생활속에서 느낀 소감, 하루 행적이 깨알같이 적혀있다. 물론 작가가 자신의 생활 단면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작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까지는 않다. 그림이란 '사실'의 전달 뿐만 아니라 '감흥'도 함께 전달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어떤 상태로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의 정황으로 볼때 작가는 감상자가 자신이 느낀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길 바라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이처럼 인물을 동화적으로 표현하고 현란한 원색으로 채색하거나 반복적인 색점 찍기를 구사하였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작가는 즐거운 삶의 무늬들을 풍부한 감성과 직관으로 포착하고 있다. 가족이 펼쳐가는 행복의 드라마가 궁극적으로 그가 전달하려는 바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왜 작가는 이처럼 행복에 집착할까? 대답은 명료하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



해 아래서-가족, 2012, Acrylic on Canvas, 145X112cm

신 최대 선물이자 축복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고 가정의 중요성일 것이다.

그의 작품은 구름 한 점없는 하늘처럼 해맑고, 어떤 면에서는 천진난만하기까지 하다. 이런 낙천적인 그림을 통해 그는 지치고 상한 사람들에게 마치 풀무질을 하듯이 기운을 불어넣고 위로의 손길을 편다.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이라고 용원을 보내는 것 같다.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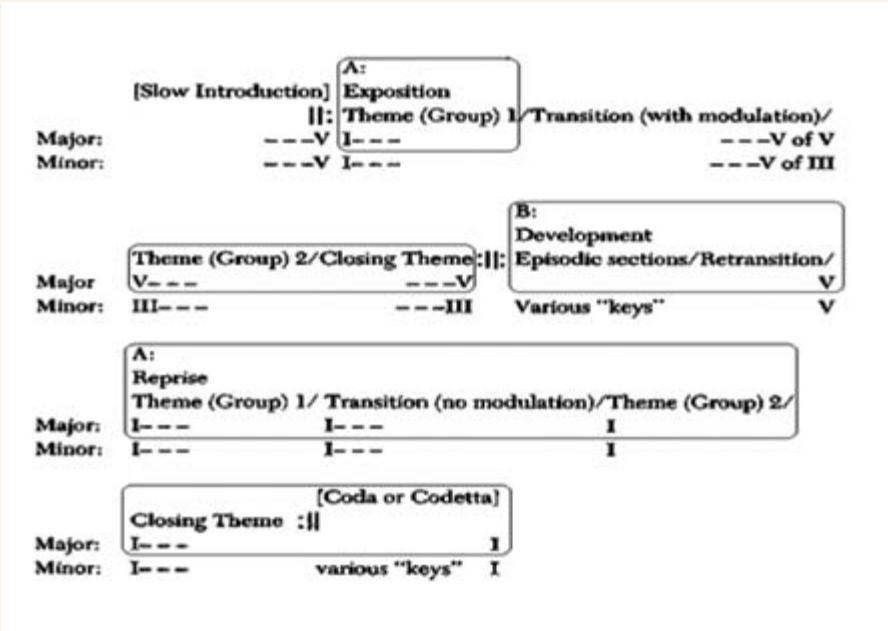


# 배음과 소나타

음악 역사에서 아주 많은 양을 자랑하는  
피아노 소나타, 첼로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는 일반적으로 반주를  
동반하거나 반주가 없는 독주곡을 일컫는다.  
그래서 곡목(~ 소나타)으로도 쓰인다.

지난 글에서 많은 곡들이 서로 다르게 들리는 이유들을 살펴 보았다. 피아노 소나타와 심포니가 다른 것은 장르가 다른 것이다. 바하의 소나타와 브람스의 소나타가 다른 것은 바로크/낭만의 스타일이 다른 것이다. 스타일이란 곡의 색깔과 텍스춰, 화음, 리듬, 선율, 형식 등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근거가 배음에 있고 곡의 음색 tone color이나 분위기도 근본적으로는 배음 간격, 음역과 관련된다는 것을 오케스트레이션의 악기배분을 통해 알아 보았다. 그러므로 같은 작곡자의 작품도 다르게 들릴 수 있고,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도 비슷하게 들리 기도 한다. (스타일에 관한 관심이 있는 분을 위해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다. A History of Musical Style - Richard L. Crocker)

이제 소나타의 구조와 배음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바로크와 고전시기의 중요한 곡의 형식 혹은 과정을 두 개 뽑는다면 소나타와 푸가일 것이다. 소나타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음악 역사에서 아주 많은 양을 자랑하는 피아노 소나타, 첼로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는 일반적으로 반주를 동반하거나 반주가 없는 독주곡을 일컫는다. 곡목도 " ~ 소나타 " 로 쓰인다. 더 나아가, 소나타 형식이란 3-4 악장의 챔버chamber나 교향곡symphony, 협주곡concerto, 독주곡solo sonata 등의 한 악장의 형식을 일컫다. First movement form, 혹은 sonata allegro form이라고 하며 제시부exposition, 전개부development, 재현부recapitulation의 세 부분(three parts: A-B-A)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에 첫 A가 반복되는 구성으로 세 다리를 가진 의자처럼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그 안에 선율의 상승과 하강, 리듬의 활동성, 다이내믹스(강세), 짜임새, 악기법, 협/불협 of 분량과 정도, 화음 변화의 속도를 통해 긴장과 이완의 형태(shape)를 가진다.



소나타 형식의 구조 A(Exposition)-B(Development)-A(Reprise or Recapitulation)

소나타의 일반 구성인 위의 도식을 보자. 제시부에 들어 있는 제 1주제(Theme I 혹 PT: Principal Theme)는 \* 으뜸조(tonic key=I)로 시작하고 제 2주제(Theme II 혹은 ST: Secondary Theme)와 발전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조에 해당하는 \*딸림조(dominant=V)를 사용한다. 단조의 경우는 III도조를 경유하는 것을 제외하면 장조와 같고, 재현부(Theme I, II)에서 다시 원조인 으뜸조(I)로 돌아오게 된다. 전체를 보면 I-V-I(C 장조인 곡의 경우: C-G-C, C단조인 경우: C-Eb-G-C)로 우리가 들었을 때 자연스런 곡의 흐름을 가지게 된다.



바로크와 고전, 낭만시기의 소나타를 포함한 다른 장르의 모든 곡들, 작은 소품으로부터 긴 곡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체 구조(I-V-I)를 가지고 있다. II, III, IV, VI, VII의조를 빼고 왜 5도 위의 음에 해당하는 V(dominant) key가 우세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배음의 원리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첫 16개의 배음 중 기음fundamental(배음중 첫음)과 같은 음을 빼고 많이 나오는 음이 5도 위의 음이다. (예, 기음이 "도"라면 5음은 "솔")이다. 이 "솔"이 만드는 화음(솔-시-레)은 항상 도-미-솔 화음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다. 왜 그럴까? 5도에서 만들어지는 화음(솔-시-레)안에 긴장을 갖는 음(시)이 있고 이 음은 1음(시->도: 반음 간격)으로 가려는 성향(긴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음 위 5도 음 위에서 생기는 화음은 1음을 중심으로 안정(이완)하려 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자신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원리와 같다.

※곡이 C 장조라 하면 C 장조 음계scale을 중심으로 곡이 만들어지고 "C"가 중심조가 된다. 음계의 각 음마다 수직으로 3도씩 쌓아 3화음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도"에서 만들어지는 "도-미-솔"을 로마숫자를 사용하여 I도 화음이라고 하고 "레"에서 만들어지는 "레-파-라"는 II도 화음이라 한다. 그러므로 V도 화음은 다섯번째 음인 "솔"에서 만들어지는 "솔-시-레" 화음을 의미한다. 왜 주인인 화음(I)에 가장 가까운 화음과 key인 "V"화음과 G 장조를 곡의 구조화음과 key로 사용하는 것은 배음과 연관할 때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다.

다음 곡은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35번 C장조, 1악장의 제 1주제(PT: Principal theme)이다. 조금 더 자세히 제시부의 첫 부분인 제 1주제부분의 화음진행을 살펴보고 배음과의 관계를 살펴 보겠다. 위의 큰 도식이 아래의 phrase(악구)안에도 축소되어 I-V-I 구조 화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곡 전체의 첫 주제인 I(C장조)과 발전부의 V(G장조), 다시 재현부에서 I(C장조)조로 복귀하는 것과 일치한다. 곡 전체와 각 부분이 한 논리(같은 화음을 사용하는)를 가진다.



축소(middleground, background)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음, 화음, 선율을 볼 수 있다. 이를 구조화음과 구조선율이라 부른다. 첫 도식인 소나타 형식의 구조와 아래 분석된 첫 주제의 구조가 똑 같아서 전체와 부분간에 통일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배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곡의 우세한 화음과 조Key가 결정된 것이고, 이로 인해 전체 조key와 부분이 일치하는 통일성이 생긴 것이다. 이런 곡의 구조를 200여 년 간의 작품들이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연주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연주 곡목들이다. 축약형 악보를 보자. 전체 I-V-I 같은 I-V-I의 구조이다.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no. 35번 축약(middleground와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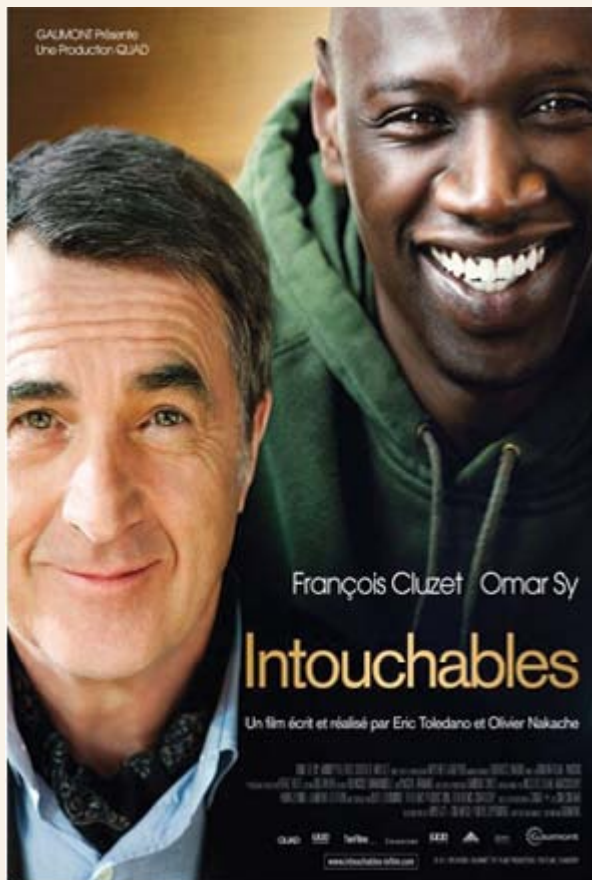
바로크시기와 고전, 낭만시기를 걸쳐 조성이 파괴되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소나타를 포함한 모든 장르의 곡들이 이런 배음의 특징을 따른다. 한 곡의 "통일성(unity)", 음악 외 미술과 건축, 문학 등 모든 예술가의 작품에 존재하는 통일성(unity)....예술이라는 이름 안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배음이 이 곡의 통일성을 만드는 원재료(Raw material)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재료로 우리는 제2의 멋진 창조를 한다. 인간의 자리는 너무나 멋진 자리 아닌가?

다음 글은 푸가에도 이런 원칙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인간의 예술성과 그 책임에 대해 논하겠다. 다음 글은 푸가에도 이런 원칙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살펴보겠다. 🎵



**이경원** 한양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음악 작곡 석사 및 박사(DMA) 학위 를 받았다. 한양대 및 대학원, 단국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필라델피아 St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챔버 코치를 거쳐 현재 하늘소리 홀스쿨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원제: Sound Stewardship)(DCTY)』이 있다.





## 양극화 사회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영화를 만나다

올리비에르 나카체 감독의 '언터처블: 1%의 우정(Untouchable)'

### 프랑스 코미디의 특징

짐 캐리와 로완 앳킨슨(미스터 빈)으로 대표되는 영미권의 코미디영화들이 과장된 몸개그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관객들을 포복절도시키며 영화 보는 내내 아무 생각도 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프랑스의 코미디영화는 풍자와 해학을 곁들여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사회적이며 철학적인 경향이 강하다. 관객을 의자에서 떨어지게 할 만큼 뒤집어지는 웃음을 선사하는 배우들은 많지 않지만,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들을 비틀고 뒤집어서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웃게 하는 데 능수능란한 배우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680년에 창립된 극단 '코미디 프랑세즈'가 아직도 건재하고 몰리에르와 같은 희극작가의 공연이 여전히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문화 풍토는 사회 풍자적 코미디물의 깊이가 범상치 않음을 연연증 알려준다.

그러나 프랑스 코미디영화는 프랑스 문화권 안에서만 효용가치를 지녀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사회문화 풍자를 통한 웃음은 시의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문화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웃을 수 있다. 아무리 번역을 완벽하게 한다고는 해도 자기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농담을 듣고 웃을 수 있는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한국 관객은 많지 않다. 프랑스에서 제일 잘나간다는 코미디언 니콜라 칸트루가 대선을 앞둔 요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내 귀여운 장난감”이라고 말해 당사자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웃겼다는 일이 프랑스에서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현 정치구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통할 수 없는 코미디이다.

그런데 올리비에르 나카체 감독의 새로운 프랑스 코미디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은 다르다. 살아온 배경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 프랑스가 직면한 인종차별과 빈곤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현대인의 자존감 붕괴와 같은 심리문제를 직면시킨다. 또한, 인종과 사회계층 간의 화합에 대해 소망을 하게 하는 바람에 결핍과 불만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생각과 웃음을 제공하고 있다.

###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목 밑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부자 필립(프랑수아 클루제)은 아프리카계 빈민이며 전과자인 드리스(오마르 사이)를 24시간 도우미로 맞이한다. 그저 돈을 매개로 고용주와 노동자에 지나지 않을 관계가 친밀한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드리스의 꾸미지 않은 태도 때문이다. 취직을 위해 온갖 아부를 떨지도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일을 하지도 않는다. 좋으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싫으면 싫은 내색을 감추지 않는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드리스의 태도는 형식과 규범을 중시하는 상류사회서 필립이 보아 온 모습과는 다르다.



드리스는 아내를 잃고 사지 마비로 꼼짝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걸려 편지를 주고받는 여성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주저한다. 그런데 드리스는 마음이 원하면 해야 하는 직설법으로 필립의 고민을 풀어나간다.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고 직접 전화하는가 하면, 만남의 자리도 주선한다. 드리스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자신이 돌보는 사람의 전 인격적인 삶에 관여하는 오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영화는 필립이 패러글라이더를 탈 때 활강이 주는 속도감과 거침없이 부딪히는 바람을 폐 속 가득히 담아낼 때의 기쁨을 묘사하며 부자유스러운 신체가 주는 가슴 답답한 삶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려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립이 자유를 맛보는 그 자리에는 항상 드리스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영화는 2011년 프랑스 박스오피스 10주 연속 1위에 오르며 1,8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 역대 흥행순위 3위에 오를 만큼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 두 주인공의 사회적 유대감에서 오는 친밀함이 갈등과 분열이 일상화된 삶을 사는 관객





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드리스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과속하다 잡히자 필립이 위급한 환자 연기를 하며 위기를 모면한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신분과 역할을 넘어서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행복조건의 하나인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유대감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드리스는 필립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낙담하는 인생으로부터 필립을 건져낸다. 반면 필립은 드리스의 범죄 경력에도 자신의 삶 깊은 곳까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므로써 드리스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도록 하는데 결정적 이미지를 한다. 성경 말씀대로 ‘함력하여 선을 이룬다(롬 8:28)’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켜보게 한다.

둘째는 흑인 드리스의 당당한 모습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높여준 일은 흑시라도 관객이 가졌을 법한 인종이나 계층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드리스는 필립이 미술품을 구매하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대회화를 수만 프랑에 거래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는 한편으로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영화는 드리스가 별생각 없이 그린 초보작이 필립을 통해 고가로 팔리는 광경을 보여주며 상류사회의 허위의식을 비판한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드리스가 가난하지만 어린 동생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돕는 일이며, 필립의 집에서 몰래 가져갔던 필립 아내의 기념품을 다시 갖다 놓음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한 일이다. 부유하고 많이 배운 백인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한다는 설정부터가 프랑스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흥미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생각하게 하였을 것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히 10:24)’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의 일은 아닌듯싶다. ㉠



**강진구**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 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 행복을 위한 내려놓음

부부간의 정서적 공유와 평등성이 중요한  
시대에서 아버지와 남편은 경제적  
부양 외에도 감정노동과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많은 남성이 이런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변화에 힘겨움을 느끼고 있다. 일상의 부부관계에서 돌봄 및 가사노동과 관련한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아이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라고 요청하면 화가 나거나 반감을 갖게 된다.

맞벌이하는 아내들은 남편들이 아이들을 챙기고 가사에 참여하지만, 자신들처럼 남편들이 아이들을 먹이고, 챙기고, 입히고, 교육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고 또한 가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섭섭함과 불만을 품곤 한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관계에서 불만을 토로하지만, 남성들은 그들이 정당한 지적임에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때도 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보면서 나는 지금 시대에 여성과 남성이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부성과 모성 그리고 부부간의 섬세한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자신들도 모르게 생각과 행동에 스며들어 있는 유교주의적 성향을 내려놓는 것이 남성 자신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까? 또한, 남성들에게 갑작스럽게 요구되는 변화에 대해 여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남성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사회적 성(Gender)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이라는 개념의 영어는 Sex와 Gender가 있다. Sex는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을 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의미하고, 타고난 생식기관을 통해 누가 남성이고 여성임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Gender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정 사회와 문화마다 남성은 어떠해야 하고(남성성, Masculinity) 여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여성성, Femininity)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에는 특정 사회마다 적합하다고 여기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기대, 규범, 행동, 태도 등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을 휘어잡으며 가사와 양육은 아내의 일로 여겨 전혀 참여하지 않는 남성을 남성적이고 좋은 남편 아버지라고 여겼다. 이런 남성성에 대한 인식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잘하고 칭찬하는 남편을 팔불출이라고 부르거나, 신혼 초기에 아내를 잡아서 남편의 말을 잘 듣게 하는 남편을 부러워한다든가 또는 일 때문에 집에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평이 없는 아내를 좋은 아내로 여기는 것에도 나타난다. 또한,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할 때 아이들이 아무 소리 못 하면 자신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예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만 차이 나는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남성에게 더 권력이나 주도권(power)을 주게 되었는가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다양한 사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회에서 정치, 경제, 법, 제도와 문화를 통해 여성들에게는 없는 남성들의 권력과 힘 그리고 특권들이 재생산됐다. 조선 시대처럼 확연하게 남성에게 제도와 정치체계를 통해서 권력을 주고 유지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현대는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친가정적인 일가족정책의 부재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양육과 관련해서 주된 책임자로서 이들은 힘겨움과 갈등을 겪게 된다. 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부성의 핵심적 영역으로 아동양육이 대두하고 있지만, 남성은 여전히 돌봄과 가사노동의 정도와 내용을 여성과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다(Johansson & Klinth, 2008). 아직도 남성의 정체성은 일이 그 중심에 있고, 이것은 남성들이 자원과 가족관계에 주도권을 갖게 하고, 남성이 여성보다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게 한다(맞벌이 여성의 주된 아동양육과 가사참여를 보았을 때 남성의 독립성은 더 대두한다). 이러한 일 중심의 남성성은 남성들이 결혼

이 후 가족을 형성해도 아내와 어떻게 정서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어떻게 가사와 돌봄 노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무지하게 하는 결과를 남성에게 가져다준다(Seidler, 2006).

이러한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들에게 용인되는 권력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의 생각과 행동 및 부부관계의 많은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나타난다. 먼저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우가 받는 이 시대는 불과 10~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여성들의 권리가 너무 갑자기 신장하였다고 말하면서 일상의 가족 및 부부관계에서 뿌리깊은 남성 중심적인 잔재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보다도 사회적으로나 가족관계에서 남녀의 권력차이가 덜하다는 미국에서조차도 남녀의 권력차이는 부부관계의 다양한 영역과 심리, 감정, 생각 태도 등에 깊게 영향 미치며 여성과 남성을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강자는 – 대다수 남성 –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아내가 부부관계의 불만에 대해 남편과 대화하기를 원할 때 남편은 시끄럽다고 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피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이 가진 문제에 대해 도전을 하고 관계의 양상을 변화시키려 할 때 그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는 것이다(Gottman, Coan, Carrere & Swanson, 1998). 그리고 아내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이다.

남성들은 사회제도와 문화와 일상의 과정들을 통해 여성보다 더 권력을 쥐고 여성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누린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런 권력구조와 권력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힘겨움을 겪기도 한다. 미국의 연구를 따르면, 남성들은 남성들 간의 심한 경쟁과 권력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공격

적이고 경쟁적이며 비감정적인 남성이 선호되는 사회 속에서 이런 성향이 적고 성공하지 못할 때 알코올중독이 되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을 심하게 겪는다. 이성과 갈등 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남성은 권력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로 말미암은 손상 및 어려움도 다분히 큼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남성의 권력이 재생산되는 사회의 구조와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좀 더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의 중심에는 남성의 권력의 내려놓음이 있다. 남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행사하는 권위와 권력이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상의 가족관계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남편이 얼마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가로서 한 남성을 좋은 남편인가 아닌가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Gender 개념을 통한 남성과 여성의 이해는 이보다 좀 더 근본적인 부부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상호존중, 이해, 평등성 실현의 중요성을 보여주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Mahoney와 Kudson-Martin(2009)은 부부가 얼마나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평등하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문항들을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다.

1.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에서 상대적인 위치: 1) 가족 중 누구의 의견과 감정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가족의 분위기나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아내와 남편은 얼마나 개인의 목적과 요구, 소망 등을 표현하고 성취하는데 자유로운가? 3) 부부 중 약자인 사람은 어떻게 가사와 양육을 수행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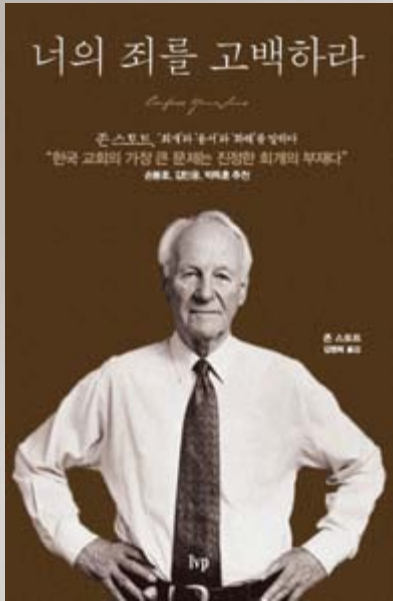
**김성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브랜디와인 캠퍼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족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부부관계, 남성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 질적연구방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2.상대방의 요구와 감정에 대한 민감성: 1) 부부가 얼마만큼 상대방의 요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신경 쓰는가? 2) 부부 둘다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부부 중 한 명만이 다른 한 명의 요구와 감정에 관심을 두는가? 3)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의 요구와 감정을 챙기는 것에 치우쳤을 때 다른 한 명은 그것을 인식하고 요구와 감정을 챙기는가?

3.협상의 패턴: 1) 한 사람의 일정에 다른 한 사람이 주로 맞추는가? 2) 협상을 하는데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그냥 한쪽이 참고 넘어가는가?

4.복지감: 1)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더 혹은 덜 심리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행복한가? 2) 부부 중 한 명의 성공이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심한 희생에 기반을 둔 것인가? 3) 남편과 아내는 둘 다 경제적인 책임을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맞벌이가 대부분인 미국의 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전히 자신을 가사와 양육의 2차적인 책임자로 보고 있다. 이들의 돌봄과 가사노동의 참여시간은 1960년대에 비해서 그다지 늘어나고 있지 않다. 이로 말미암은 부부간의 갈등 또한 많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희생에 대해 남편이 감사함을 표시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느낄 때 남편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가사와 돌봄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가사와 아이 양육에서 면제되었다는 시각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가사와 양육에 관심을 두고 아내의 요구와 감정에 민감할 때 아내가 하는 노동을 여성이기에 엄마이기에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로 인해 남편들은 기쁨을 느낀다. 결국, 결혼생활의 행복은 남편이 얼마나 자신이 남성으로서 가지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내려놓고 아내의 요구와 감정에 민감하며 서로서로 인정하면서 맞춰나가는가에 그 핵심이 있다. ☺



## 너의 죄를 고백하라

존 스토틀 지음 | 홍종락 옮김 | 홍성사 펴냄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분량이 많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원서는 그가 40대 초반의 교구목사이던 1964년에 출간되었다. 원서는 “화해의 길”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으며, 같은 성공회 소속의 신학자인 필립 E. 휴스가 편집한 기독교 기초들 시리즈의 한 권으로 간행된 것이다.

요즘 들어 한국 교회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말을 흔하게 듣는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는커녕 세상의 염려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교회의 존폐를 따지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고 옥한흠 목사는 ‘벼랑 끝에 선 한국 교회’라고 개탄한 적이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해명할 수 있겠지만, 디트리히 본회퍼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 없이 쉽게 선포되는 용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정당화해주는 값싼 은혜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설교자는 목회사역을 시작하면서 ‘죄’(sin)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결단하고서 늘 긍정의 메시지만 전해왔다. 이처럼 긍정과 형통, 번영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성경적 교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방해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고백의 문제 혹은 회개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C. S. 루이스의 말처럼 회개란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주기도 쉽지 않지만,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솔직히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때에 존 스토틀의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분량이 많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원서는 그가 40대 초반의 교구목사이던 1964년에 출간되었다. 원서는 “화해의 길”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으며, 같은 성공회 소속의 신학자인 필립 E. 휴스가 편집한 기독교 기초들 시리즈의 한 권으로 간행된 것이다.

비록 출간된 지 반세기가 차가고 있는 책이지만 본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여전히 신선하고 적실하게 읽히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스토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충성스럽고 신실한 작가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죄고백과 죄용서의 진리를 본서 속에서 잘 해명해주고 있다. 그의 모든 저술이 그러하듯이 본서 역시도 명쾌하게 쓰인 책일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서는 머리말, 결론 그리고 다섯 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공식적인 성공회의 선언물들을 소개하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에서 스토틀은 죄가 불쾌한 사실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이유를 말한다. 기독교야말로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죄에 대해 만족할 만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해야 하는 세 가지 진리로서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정죄함을 받고 있으나, 죄 사함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죄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8쪽). 죄 사함은 죄 고백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백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스토틀의 과제이다.

죄 고백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해야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리이다. 이 원리에 의하면 세 가지 종류의 죄에 따른 세 가지 종류의 고백을 구별할 수 있다고 스토틀은 말한다. 하나님께만 범한 은밀한 죄에 대한 은밀한 고백, 하나님뿐 아니라 한 개인이나 두세 사람에게 범한 죄에 대한 사적인 고백, 그리고 단체 혹은 공동체나 지역 교회 회중 전체에게 범한 것이어서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공적인 고백 등이 그것이다. 1장에서 스토틀은 하나님께 하는 은밀한 고백에 대해 다룬다. 스토틀은 죄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을 인정하고 비통해하기 위해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죄, 이기심, 수치심은 있는 그대로 처절하게 노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 정하신 방식은 의도적으로 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그분이 그 아들의 죽음의 공로로 그 죄들을 덮으시는 것이다. 죄 사함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짓 없이 그분의 거룩한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스토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죄를 고백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죄를 거부하고 물리침으로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고백은 즉각적이고 자세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기를 구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함이며, 그다음 그것을 극복할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들을 버리기 위함이다(31, 32쪽).

2장에서는 피해 당사자에게 하는 사적인 고백을 다룬다. 모든 악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지만 그중 일부는 동료 인간에게도 범한 죄일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스토틀은 이 장에서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다룬다. 우선 이웃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백). 두 번째로 다른 누군가에게 행한 악한 행동이나 상처 모두에 대해 힘이 닿는 대로 배상과 보상을 할 준비를 하고 그들과 화해를 해야 한다(배상). 세 번째 의무는 꾸짖음과 회복에 대한 것인데,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회개에 이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스토틀은 꾸짖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되 상대의 영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상대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



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스토트에 의하면 “회개를 건너뛰는 용서는 사랑이 아니라 감상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52쪽).

3장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고백에 대해 스토트는 설명한다. 이런 공적인 고백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성공회 예배 모범에 따라 예배 첫머리에 모든 성도들이 공적으로 참회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교회가 드리는 고백이고, 일반적인 죄성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죄들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토트는 신중하게 다루었다. 스토트는 그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나서 이런 고백이 필요할 때는 서로 함께 하려 하는 개인 신자들 사이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세 번째 형태가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인 고백인데 이는 공동체에 범한 죄에 대해 그 공동체에게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수 7:19, 마 18:15-17). 교회는 그런 공적인 죄인들에 대하여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스토트에 의하면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현대 교회가 약하고 무기력해진 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징계의 부재가 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파문의 목적은 죄인에 대한 합당한 벌을 주고, 문제를 개선하고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본서의 후반부인 4장과 5장에서 성공회 사제인 스토트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 사제에게 하는 비밀 고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비밀 고해는 가톨릭교회와 앵글로 가톨릭교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관행일 뿐 아니라 성공회 교인들도 추천해온 관행이다.

스토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초대 교회나 성공회 예식도 그런 관행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지지하거나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스토트는 사제에게 비밀 고해를 하고 사제의 사죄 선언을

듣게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4장에서 논박하고, 신자들의 실제적인 삶에 유익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5장에서 반박을 한다.

이 부분은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가 고해 성사에 대해 성경적이고, 역사적이며, 신학적으로 잘 논파하고 있는 탁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련된 주요 본문들(마 16:19; 18:18; 요 20:23 등)에 대한 해명도 아주 건전하고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이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존 스토트는 본서 가운데서 죄 고백과 죄 사함의 문제를 다루되 오직 하나님 말씀의 빛에서 철저하게 다루고자 했기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의 확신을 할 수 있으며,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모두 죄 고백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죄 고백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점과 죄 사함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권면해준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스토트의 권면들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곱씹어 볼 뿐 아니라 그가 권하는 대로 성경적인 죄 고백을 실천하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사죄함의 은혜가 주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고,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이상웅** 계명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신학부에서 수학했으며,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Th. M., Ph. D.)를 취득했다. 대신대학교 강의전담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구 산격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는『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부흥과개혁사)이 있다.

## 1등 칸의 도착지

미국 서부의 한 시골 처녀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뉴욕에 가게 되었다. 너무 자랑스럽고 흥분되어 삼등석 비행기 표를 사서는 일등석에 앉았다. 승무원이 삼등석으로 가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뉴욕과 같이 큰 도시에 가는 사람은 일등석을 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사무장이 와서 설득해도 막무가내였다.

우연히 기장이 지나가다 승객과 옥신거리는 승무원에게 연유를 물었다. 상황을 파악한 기장이 그 승객 귀에다 대고 낮은 소리로 몇 마디 했다.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는 짐을 챙겨 3등 칸으로 급히 옮겼다. 승무원들이 너무 신기해서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기장에게 물었다. “간단하지. 1등 칸은 뉴욕으로 안 간다 했지!” ☺



**교훈** 쫓겨나지 않으려면 3등 칸에 타라 (눅14:8)





## WORLDVIEW NEWS



### 신임이사취임

2012년 동역회의 이사로 이인용(삼성전자 부사장), 이강인(엘비전 대표) 이사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이인용 이사는 MBC 기자 출신으로 뉴스데스크 앵커를 거쳐 현재 삼성 전자 부사장으로 계시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위하여 오랫동안 물심양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강인 이사는 인터넷서점 yes24를 창업하셨던 기업인으로 현재는 스포타임과 엘비전 대표로 계시며 월드뷰 제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매년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가 올해에는 중국 절강대학교 기독교및타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준비하며 5월 18(금)~19(토) 이틀간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18일에는 국제학술대회로, 19일에는 세계관동역회의 기독교학문연구회 분과별 논문 발표와 대학원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 한국 키에르케고어학회 2012년 봄 공개강좌

학술등재지 '신앙과 학문'의 새로운 편집위원 19세기 초 덴마크 사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루터파 사상이 키에르케고어와 20세기 세속화된 프랑스 사회 속에서 사회 문제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비판해 준 개혁신파 사상이 자크 엘룰을 비교하는 공개강좌가 개최됩니다.

- 발표자: 박건택 박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
- 주제: "키에르케고어와 자크 엘룰"
- 일시: 2012년 5월 12일 (토)  
오후 4시 - 6시
- 장소: 신반포중앙교회  
(http://www.sbpcc.or.kr/)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  
(전화: 02-536-4511-3)  
※지하철 7호선 반포역 6번 출구로 나와서 뉴타운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100m 오시면 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 회비: 10,000원 (같이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 VIEW\_월드뷰 컨퍼런스 개최

VIEW 원우회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 주최한 "Worldview Conference"가 재학생 25명, 졸업생 10명, 지역교회 지도자 10여 명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3일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마이클 고한 박사는 세 차례의 강의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성경의 중요성과 적용'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열정적으로 나누었으며, 김재섭, 안병렬 원우는 각각 '한국교회와 설교', '한국교회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주제로 소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원우총회에서는 김재섭 원우가 신임회장으로, 김경민 원우가 신임총무로 선출되었습니다. 4월 21일 토요일에는 ACTS Seminary 졸업식이 거행되었는데 VIEW에서는 2명의 원우가 석사 학위(MACS)를 수여하였으며, 7명의 원우가 디플로마로 졸업하였습니다.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PURE  
PLEASURE



쾌락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  
쾌락을 좇아 사는 사람  
쾌락을 엉뚱한 데서 찾는 사람  
쾌락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  
이런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그래서 당신이 읽어야 할 책!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신국번형 | 344면 | 15,000원

쾌락이 흘러넘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한 삶이다

한 평생 창조론 연구에 매진해 온 양승훈 교수가 직접 들려주는

## 창조론 동영상 강의

6장의 DVD 총 24개 강의로 구성된  
1세트가 33,000원



### 양승훈 교수

현 VIEW(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경북대학교 사범대 물리교육과 교수 역임

### 학력

경북대학교 사범대 물리교육과(BA)  
KAIST 물리학과 반도체물성(MS, Ph.D)  
위스콘신대학 과학사학과(MA)  
위튼대학 신학과(MA)

### 저서

「다중격변창조론」, 「생명의 기원과 외계생명체」, 「창조와 격변」, 「창조론 탐구학습」, 「창조론 대강좌」,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물에 빠진 오리」 등 다수

구입문의: 도서출판CUP T. 02)745-7231 F. 02)745-7239 E-mail: cup21th@paran.com





기독교의 지성  
C. S. 루이스와  
아이들의 만남

#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

1944년부터 1963년 C. S. 루이스가 죽기 전일까지, 루이스가 아이들에게 보낸 96통의 편지. 루이스의 인간적인 면모, 특히 아이들을 대할 때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신앙 고민이나 글쓰기 요령 등에 대한 조언을 통해, 세계 걸작 판타지의 하나인 《나니아 연대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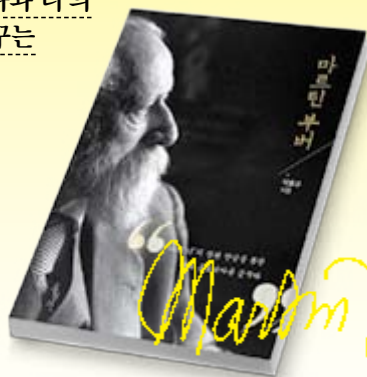
C. S. 루이스 지음 | 라일 W. 도싯·마저리 램프 미드 역음  
정인영 옮김 | 134\*202 | 양장 | 250면 안팎

# 마르틴 부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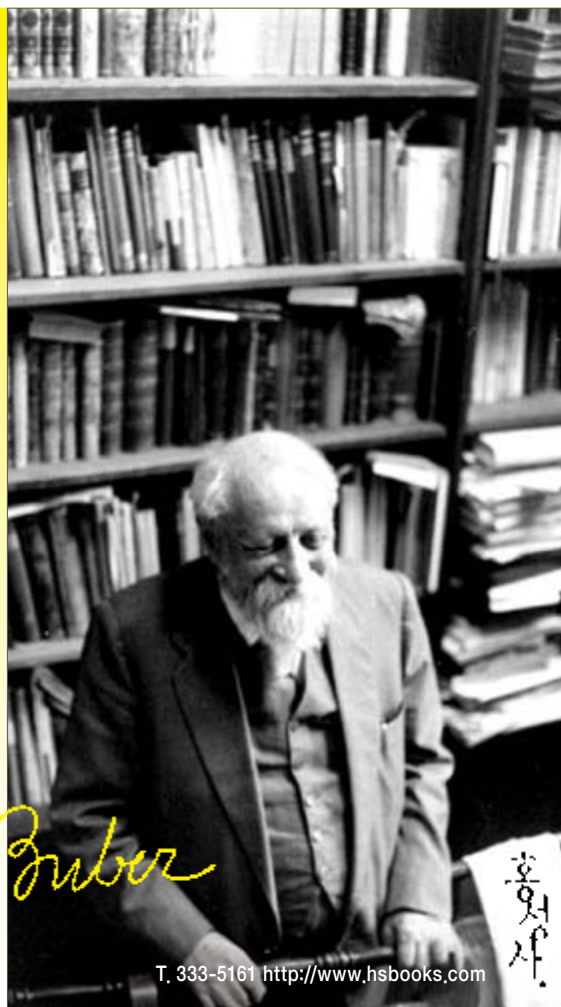
‘나와 너’의 참된 만남을 통한  
대화 유토피아를 꿈꾸다

우리는 과연 ‘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수많은 말을 쏟아 놓지만,  
진실한 대화, 의미 있는 소통, 인격적 만남이란 있는 걸까?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



박홍규 지음 | 150\*210 | 328면 | 13,000원



T. 333-5161 <http://www.hsbooks.com>

호서  
사